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7 | No.166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바이오경제 2.0 시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7 | No. 166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3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3
(3) 서비스수지	45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64
2. 바이오경제 2.0 시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70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7 | No.166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 5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약세와 선행지수 하락세 등 실물경기 여건의 부진이 지속
 - 연준이 올해 미 성장률 전망치(4분기 0.4% → 1.0%)를 상향하면서도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금리 인상 이후 현 금리(5.00~5.25%) 유지를 결정
- 일본은 4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유로존 역시 역내 실물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역내 경기 부진을 시사
 - 일본은행(BOJ)은 6월 회의에서 최근의 엔화 약세 및 고물가 부담에도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유지를 결정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4.0%)
- 중국은 5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 역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면서 내·외수 여건의 부진세를 반영
 -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3.55%, 사상 최저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미국	실질GDP ¹⁾	5.9	2.1	3.2	2.6	2.0				
	산업생산	4.4	3.4	0.5	-0.6	-0.1	0.0	0.1	0.5	-0.2
	소매판매	18.4	8.3	0.3	0.1	1.1	-0.7	-0.9	0.4	0.3
	무역수지 ²⁾	-841.6	-951.2	-210.7	-213.5	-201.0	-70.2	-60.6	-74.4	-69.0
일본	실질GDP	2.2	1.0	-0.4	0.1	0.7				
	광공업생산	5.8	0.0	3.1	-1.7	-1.8	3.7	0.3	0.7	-
	소매판매	2.0	2.6	1.3	1.2	2.5	2.1	0.3	-1.1	-
	무역수지 ²⁾	-1,784	-19,966	-6,312	-5,662	-5,185	-920	-759	-432	-
유로	실질GDP	5.3	3.5	0.4	-0.1	-0.1				
	산업생산	8.8	2.2	0.1	-0.4	-0.2	1.4	-3.8	1.0	-
	소매판매	5.1	0.9	-0.8	-1.0	-0.2	-0.2	-0.4	0.0	-
	무역수지 ²⁾	109.5	-328.6	-124.3	-58.4	1.4	-1.8	14.0	-7.1	-
중국 ³⁾	실질GDP	9.1	3.0	3.9	2.9	4.5				
	산업생산	9.3	3.4	4.8	2.8	3.2	2.4	3.9	5.6	3.5
	소매판매	12.4	-0.8	3.5	-2.7	7.1	3.5	10.6	18.4	12.7
	수출(달러화)	29.6	7.0	10.2	-6.7	0.5	-1.3	14.8	8.5	-7.5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7월 초 미 달러화 약세 전환,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6월에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 주요국들의 차별적 통화정책 기조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7월 들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일
엔/달러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1.31
달러/유로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1001
미 국채 (10년 만기)	4.05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9
WTI유	86.5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73.0
두바이유	90.0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78.6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은 6월 중 각각 3.6%와 2.1% 상승(엔화 약세, 유로 강세)하면서 주요국 통화의 차별화 반영
- 유가는 지난 6월 중 사우디의 추가 감산과 주요국 경제지표 방향,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으로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7월 초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미 원유재고 감소,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6월 중에 각각 3.7%와 5.5% 상승하고, 7월 초 현재도 각각 3.4%와 3.3% 추가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5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3.5%로 증가세 축소

- 5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5%로 증가세 축소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2%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연간	1/4	3월	4월	5월
공업 전체		9.6	3.4	3.6	3.0	3.9	5.6	3.5
섬유	방직	7.5	-2.5	-6.6	-8.1	-10.2	-7.4	-2.8
	화학섬유	9.1	0.5	-1.0	-4.1	3.7	13.5	11.5
화학	에틸렌	18.3	1.4	-1.0	-0.1	3.6	17.9	7.1
	플라스틱원료	5.8	1.0	1.5	0.4	4.2	7.9	5.4
	플라스틱제품	5.9	-3.2	-4.3	-2.6	-2.1	0.6	-3.3
철강	선철	-4.3	-4.7	-0.8	7.6	7.3	1.0	-4.8
	조강	-3.0	-6.5	-2.1	6.1	6.9	-1.5	-7.3
	강재	0.6	-4.6	-0.8	5.8	8.1	5.0	-1.3
비철금속		5.4	1.0	4.3	9.0	6.9	6.1	5.1
기계	금속절삭기계	29.2	-7.3	-13.1	-6.8	0.0	-1.9	1.9
	소형 트랙터	2.2	-17.3	-11.5	27.5	29.4	23.1	25.0
	대기오염방지설비	15.4	0.7	4.3	37.5	28.7	51.8	53.4
	발전설비	9.9	9.4	17.3	7.5	19.7	61.9	45.4
자동차		4.8	-2.1	3.4	-5.1	11.2	59.8	17.3
조선		8.0	-11.1	-4.5	-7.9	13.6	18.9	-4.4
전자	세탁기	9.5	-4.1	4.6	6.9	18.8	41.6	29.4
	냉장고	-0.4	-6.2	-3.6	8.4	9.0	29.7	28.4
	에어컨	9.4	1.1	1.8	12.6	13.2	12.1	18.3
	컬러TV	-3.6	5.8	6.4	-0.9	1.2	14.3	10.9
	컴퓨터	22.0	-4.4	-8.1	-21.9	-19.4	-21.3	-20.0
	반도체	33.3	-6.3	-11.6	-14.8	-3.0	3.8	7.0
	휴대폰	7.0	-2.7	-6.2	-7.0	-0.7	-2.5	3.5
서비스	화물운수	12.4	-2.2	-3.1	5.0	11.3	14.6	6.8
	여객운수	-14.1	-37.2	-37.2	26.3	67.7	141.1	109.9
	통신 ³⁾	27.8	22.7	21.3	18.0	18.6	16.4	15.7
	소매업	11.8	0.1	0.5	4.9	9.1	15.9	10.5
	음식숙박업	18.6	-7.7	-6.3	13.9	26.3	43.8	35.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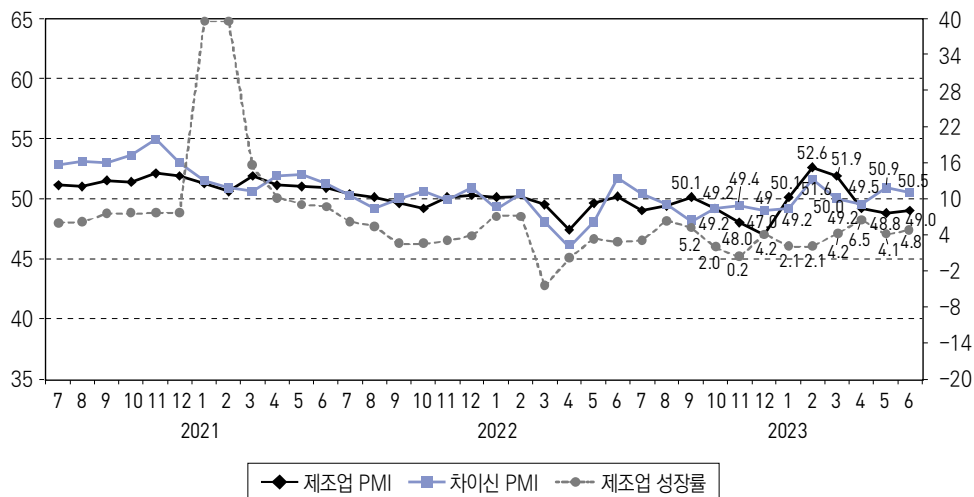
- 5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
 -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4.4%, 민영기업은 0.7%, 주식제기업은 3.5% 수준
- 5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며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일부 업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철강과 조선 등이 감소하며 회복 강도는 약해지며 증가세 축소
 - 섬유업종은 방직(-2.8%)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11.5%)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에틸렌(7.1%)과 플라스틱원료(5.4%)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플라스틱제품(-3.3%)은 감소세로 전환
 - 철강은 철강재 단가 하락과 경기회복 둔화로 조강(-7.3%)의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선철(-4.8%)과 강재(-1.3%)는 감소세로 전환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이 5.1%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대기오염방지설비(53.4%), 발전설비(45.4%), 소형 트랙터(25.0%)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금속절삭기계(1.9%)도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는 전기차로 전환을 위한 교체 수요로 인한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17.3%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축소
 - 조선업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및 기존 수주물량 인도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4.4%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
 - 전자업종에서 세탁기(29.4%), 냉장고(28.4%)와 컬러TV(10.9%)가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으나 증가세는 축소, 에어컨(18.3%)은 계절적 수요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반도체(7.0%)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휴대폰(3.5%)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컴퓨터(-20.0%)는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경기 회복 강도가 둔화되며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축소
 -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와 작년 봉쇄조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여객운수(109.9%)가 세 자릿수 증가세를 2개월 연속 유지했으나, 화물운수는 6.8% 증가로 증가세 축소

- 통신은 15.7%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증가와 기저효과로 음식숙박업(35.1%)과 소매업(10.5%)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세는 소폭 축소

□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 상승, 민간치는 하락

- 6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0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50) 이하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50.3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8.6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7.4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8.2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50.4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상회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기준치(50) 하회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0.3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한 48.9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6.4
- 6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0.5로 기준치(50) 이상 유지
 - 차이신(Caixin) PMI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여건 개선에도 경기 회복 지연과 불확실성 확대로 소폭 감소한 50.5로 기준치(50) 이상을 유지
 - 소비 수요 증가와 신규 주문 증가에도 경기 회복 강도가 강하지 않아 신규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쳤고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지수도 감소세로 전환
 - 고용지수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어 생산능력 재조정으로 인한 신규 고용 기피로 인해 4개월 연속 감소
 - 물가지수는 공급망 개선과 수요 증가세 둔화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원자재의 가격 하락으로 투입 물가 하락이 확대되고 생산자물가도 경쟁 심화와 판매가격 인하로 물가 추가 하락
 - 신규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기업 구매가 증가했으며 원자재 재고도 증가했으나 완제품 재고는 소폭 하락했으며 공급망 개선으로 배송시간 단축이 지속되어 원자재배송지수 상승
 - 기업들은 향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수 성장동력의 부족, 약한 수요,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하여 긍정적 기대 수치가 하락했으며 시장 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기대

(2) 미국

□ 5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4%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부품 등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호조 지속
 -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동월비 10.7% 증가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생산에서 계속 큰 역할

- 자동차·부품 생산도 전년동월비 9.6% 증가하면서 호조세 지속
- 항공우주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도 각각 전년동월비 4.6%, 2.3%의 증가 기록

● 반면 그 외 업종에서는 뚜렷한 생산 증가 없어

- 대부분 업종에서 뚜렷한 생산 증가가 없어 전체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수준에 그침.
- 특히 제지는 전년동월비 8.9% 감소를 기록하며 제조업종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
- 플라스틱·고무는 4.7%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성장 지속
- 통신기기와 1차 금속도 각각 3.2%, 2.8%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실적 감소폭 증가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전체	2.5	0.9	-1.1	0.7	0.0	-1.5	0.2	-0.4
식품	2.8	1.1	-0.5	1.3	-0.5	-1.4	-0.6	-1.3
제지	-5.8	-3.0	-9.1	-7.3	-9.5	-9.3	-9.4	-8.9
정유	-2.1	-1.5	-4.6	-0.5	-1.7	-1.5	0.5	1.7
화학	0.4	-0.2	-4.5	0.3	2.0	0.7	1.4	1.1
플라스틱·고무	2.9	-1.7	-2.7	-1.7	-5.2	-5.0	-2.9	-4.7
1차 금속	-3.2	-5.9	-5.9	-2.4	-3.3	-2.7	0.0	-2.8
가공금속	3.1	1.2	0.9	1.3	0.2	-0.9	0.9	-0.1
기계	7.1	6.4	1.0	2.9	0.5	-2.1	0.3	-1.7
컴퓨터·주변기기	12.4	12.7	9.9	14.9	9.5	10.3	13.0	10.7
통신기기	12.9	11.1	8.7	6.4	4.7	2.3	-0.3	-3.2
반도체·전자부품	-1.7	-2.7	-4.7	-8.5	-1.9	-3.0	3.3	2.3
자동차·부품	11.2	4.4	7.6	3.7	9.4	1.1	8.5	9.6
항공우주	13.3	12.1	12.1	10.3	7.3	5.5	3.1	4.6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5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4.7% 증가

- 제조업 생산, 수송기기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로 돌아서
 - 수송기기는 전년동월비 39.5% 증가에 달하는 실적 호조로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전기·정보통신기기 생산도 13.4%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세 지속
 - 그 외 생산기계(2.7%)와 범용·업무용기계(1.2%)에서 생산 증가
- 그러나 다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감소 실적이 지속되는 추세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전체	3.1	-1.3	-2.1	-2.8	-0.5	-0.8	-0.7	4.7
강철·비철금속	-0.7	-4.8	-8.0	-7.0	-3.2	-4.9	-4.9	-0.7
금속제품	3.4	2.3	-0.5	-1.7	0.2	-2.9	-4.3	0.4
생산기계	8.5	3.3	5.0	-12.5	0.2	-0.2	-5.3	2.7
범용·업무용 기계	11.7	0.3	-4.9	2.9	0.2	-7.1	-2.7	1.2
전자부품·기기	-7.7	-12.6	-12.9	-16.4	-14.5	-19.4	-12.5	-12.1
전기·정보통신기기	7.7	5.5	4.8	6.5	6.0	4.7	5.3	13.4
수송기기	26.7	-0.3	-1.6	8.6	7.1	15.0	16.3	39.5
요업·토석제품	-5.0	-6.5	-8.9	-9.7	-6.2	-6.5	-7.1	-4.0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7.3	-6.0	-7.1	-7.3	-7.0	-8.1	-7.1	-6.0
석탄·석유제품	1.5	3.2	-4.0	-1.7	0.1	0.1	0.6	-6.5
플라스틱제품	0.5	-4.1	-5.6	-6.5	-3.7	-4.8	-3.7	0.2
펄프·종이·가공품	-3.7	-3.3	-3.1	-4.5	-6.0	-4.3	-5.1	-6.6
식품·담배	-4.3	-1.3	-0.5	-1.2	-0.6	0.0	-2.4	-
기타 제조업	-1.4	-1.5	-3.1	-2.9	-1.7	-3.6	-2.9	-0.7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전자부품·기기 생산은 12.1%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상황
- 펄프·종이·가공품,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요업·토석제품 등도 각각 6.6%, 6.0%, 4.0%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실적 지속

(4) 유로존¹⁾

□ 5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7% 하락

- 5월 유로존 제조업은 자동차, 전자부품, 통신기기, 식음료 및 조선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생산이 부진하며 전년동월비 1.7% 하락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전체	4.0	1.5	2.3	2.9	-0.6	1.0	-1.7
식음료	0.5	0.8	1.3	0.6	0.6	-1.4	3.3
섬유	-2.4	-8.3	-8.1	-8.8	-8.0	-9.1	-9.7
정유	3.6	0.4	1.0	1.1	-1.1	-7.8	-8.5
화학	-7.0	-13.4	-15.3	-13.0	-11.9	-11.0	-10.3
고무·플라스틱	-2.3	-4.3	-4.7	-4.4	-3.9	-6.0	-4.4
1차 금속	-4.4	-4.7	-7.0	-6.2	-1.3	-4.1	-3.2
조립금속	-0.3	-1.5	-0.6	-2.1	-1.7	-3.1	-1.8
기계	4.4	4.2	5.3	3.9	3.7	-0.7	-0.1
통신기기	2.2	0.6	1.9	0.4	-0.3	-0.6	3.4
전자부품	13.5	8.2	7.3	12.1	5.6	5.2	8.9
자동차	3.7	20.2	9.3	17.7	33.5	19.2	18.8
조선	1.5	4.8	3.0	3.0	8.3	-3.7	0.5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20개 국가.

- 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16.1%), 기초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15.5%), 화학섬유(9.7%) 등의 생산 감소로 -10.3% 기록
- 섬유는 기타 섬유(-12.3%), 제직(-12.0%) 및 방직(-11.0%)의 생산 부진으로 인해 9.7% 하락
- 정유는 코크스 오븐(-14.0%) 및 정유 제품(-11.3%)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3.6%) 생산 부진이 하락 견인
- 반면, 자동차는 완성차 생산(27.5%)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8.8%를 기록하였고, 전자부품의 경우 기판이 24.4%, 부품이 6.6%를 기록하는 등 생산이 확대되며 8.9% 기록

Ⅱ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5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1.3% 증가, 소비·투자 동반 증가

- 5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증가 전환(전월비 3.2%)하고, 서비스업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 증가율(1.3%)을 기록
 - 광공업 생산은 화학(-2.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4.4%), 자동차(8.7%) 등에서 상당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3.2% 증가
 -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1.6%), 운수창고(1.1%)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폭 감소(-0.1%)
 - 소매 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전월비 0.5%)를 비롯해서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6%)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 등이 일제히 동반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월비 기준 재차 증가 전환(0.4%)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2.6%)에서 증가세를 회복하고, 운송장비(6.2%)에서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상당폭 증가(3.5%)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0.1%) 공사 약세와 건축(0.7%) 공사 실적 증가로 소폭 증가(0.5%)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입액 등이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3%)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에도 수출입물가 비율과 코스피지수,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0.3%)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4.1*	2.6*	3.2* (0.2*)	1.4* (-0.3*)	0.9*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5.2* (1.6*)	3.3* (-0.5*)	4.6*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4.4* (7.0*)	6.5* (2.4*)	5.9* (-5.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2.0* (-0.1*)	-1.8* (1.3*)	1.9* (1.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5.5 (0.4)	1.9 (-1.4)	1.2 (0.7)	3.4 (1.1)	2.0 (1.1)	-1.0* (-1.3*)	-0.9* (1.3*)
광공업생산지수	8.2	1.4	1.4 (-2.4)	-6.4 (-6.1)	-9.7 (-0.9)	-8.2 (-2.7)	-7.6 (4.7)	-9.0* (-0.6*)	-7.3* (3.2*)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4 (-2.6)	-6.7 (-6.4)	-10.0 (-0.9)	-8.4 (-2.6)	-7.6 (5.1)	-9.2* (-0.6*)	-7.5*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8.5 (1.7)	5.8 (0.2)	6.4 (1.2)	8.5 (2.1)	6.0 (-0.4)	2.9* (-0.5*)	2.0* (-0.1*)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9 (0.3)	-2.3 (-1.4)	-0.4 (1.1)	0.4 (5.2)	0.1 (0.1)	-1.4* (-2.6*)	-0.6* (0.4*)
설비투자지수	9.6	3.3	7.5 (8.6)	9.6 (-0.2)	-0.5 (-8.8)	4.1 (1.2)	1.9 (-2.5)	4.4* (0.9*)	-4.3* (3.5*)
건설기성액	-6.7	2.7	3.5 (0.8)	6.4 (4.9)	11.5 (4.6)	19.5 (3.5)	12.1 (-4.2)	12.3* (1.2*)	5.4* (0.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8	108.3	109.0	108.9	108.8*	108.7	109.5*	110.0*	110.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0.5	100.8	100.1	99.2*	99.2	99.6*	99.8*	99.9*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1	109.5	109.4	109.3	109.4	109.4*	109.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3	100.0	99.9	99.5	98.9	98.9	98.6	98.4*	98.4*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2% 증가

- 5월 국내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된 반면, 농림·어업에서 감소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3%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0.9%)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감소(0.8% → -0.9%)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2개월 연속 둔화(2.0%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1.5% → -3.0%)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율도 3개월 만에 하락(2.0% → 1.8%)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7,273	28,089	28,425	28,216	27,767	27,363	27,714	28,223	28,432	28,835
전년동기비	1.4	3.0	2.8	2.2	1.5	1.5	1.1	1.7	1.3	1.2
농림·어업	0.9	4.6	5.7	2.0	-1.6	-3.8	-3.5	2.1	0.8	-0.9
제조업	-0.2	3.1	5.0	2.9	-0.8	-0.8	-0.6	-1.1	-2.1	-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2	2.1	2.1	2.3	1.8	2.3	2.0	1.8
건설업	3.7	1.6	-0.3	0.2	-1.0	-1.9	-0.2	-1.0	-1.5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1.0	2.4	2.2	2.8	1.8	2.0	2.0	1.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3.9	1.0	1.4	1.3	0.2	2.7	1.2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2.8	2.6	2.9	3.3	2.7	2.8	3.0	2.9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8	2.9	2.7	2.9	2.6	2.7	2.6	2.5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2% → 0.7%)에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7.9% → 8.7%)와 정보통신업(3.1% → 6.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5.5% → 6.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4%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2.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03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포함, 전년동월비 2.7% 증가

- 6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6%) 등 소수 부문에서 하락한 모습이나, 주택·수도·전기·연료(0.5%), 음식·숙박(0.2%),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월비 포함(전년동월비 2.7%)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5.2 (0.8)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5.0 (0.7)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5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6월 초순(6월 1~12일) 금리 약보합, 원/달러 환율 하락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2023년 4월 +7조 5,000억 원 → 5월 +7조 8,000억 원, 대기업 +3조 4,000억 원, 중소기업 +4조 4,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상환 목적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들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 CP·단기사채는 일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상환 기조를 보이고,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도래 규모 늘어나면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된 모습,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모습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5월 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원화대출	40.7	5.7	53.5	13.1	34.2	5.9	7.5	7.8	1,204.5
(대기업)	2.4	-0.8	14.3	4.3	14.2	0.1	3.1	3.4	231.0
(중소기업)	38.3	6.5	39.2	8.9	20.1	5.8	4.4	4.4	973.5
(개인사업자)	16.2	2.3	12.3	2.0	3.3	1.0	1.0	0.8	446.0
회사채 순발행	10.8	-0.2	0.9	-1.6	5.9	2.2	-0.9	-2.9	..
CP·단기사채 순발행	7.9	-0.7	13.8	-1.5	2.9	-0.3	1.7	-3.7	59.4
주식발행	12.4	3.2	17.7	0.4	2.4	0.3	0.1	0.3	..
은행 가계대출	35.3	-1.6	-0.1	0.4	-1.6	-0.7	2.3	4.2	1,056.4
주택담보대출	25.3	4.0	8.8	0.8	9.1	2.3	2.8	4.3	807.9
기타 대출	10.0	-5.5	-9.1	-0.5	-10.5	-2.9	-0.5	-0.02	247.3

자료: 한국은행.

- 5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월보다 더욱 확대되고, 기타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2023년 4월 +2조 3,000억 원 → 5월 +4조 2,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전세자금대출 둔화세가 약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모습이며, 기타 대출은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전월비 보합 수준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 주요 서방 국가들(호주·캐나다·영국)의 금리 인상과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7월 말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미국 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7월 3일 3.613% → 7월 10일 3.795%, 3월 9일 이후 최고치, +0.18%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6월에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출회,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1,300원 선을 일시 하회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1,300원대로 상승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로 소폭 하락(7월 3일 1,308.0원 → 7월 10일 1,306.5원, -1.5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5월	6월	7월 10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46	3.66	3.80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26	4.47	4.59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6	3.75	3.75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1	4.02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27.2	1,317.7	1,306.5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46.0	907.0	919.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증가 기준.

05 수출입

□ 6월 수출 6.0% 감소, 수입 11.7% 감소,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IT 업황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에도 IT품목들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6.0% 감소(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하고, 지역별로는 EU, 중남미, 중동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 전환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27.3%)한 데다,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79.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1.0% 하락하고, 도입물량이 3.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28.6% 감소한 약 61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60 (-11.9)	500 (-7.6)	550 (-13.8)	495 (-14.3)	522 (-15.2)	542 (-6.0)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39 (-2.2)	1,597 (-13.0)	553 (3.5)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무역수지	293	-478	-186	-226	-372	-53	-47	-27	-21	11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5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5% 감소, 전월비 3.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8.5%), 기타운송장비(4.9%)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6.7%), 전자부품(-19.9%), 화학제품(-16.6%), 섬유제품(-10.1%), 기계장비(-6.8%), 1차 금속(-2.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여전히 상당폭의 감소세(-17.8%)가 이어지고, 중공업(-7.2%)과 경공업(-9.9%)도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 통신·방송장비(-16.9%), 화학제품(-2.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동차(8.7%), 기계장비(6.1%), 섬유제품(4.9%), 반도체(4.4%), 1차 금속(0.7%), 전자부품(0.2%) 등 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증가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5%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3%로 전월과 달리 6.8%포인트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약간 더 확대(15.6% → 16.7%,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된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108.4	107.1	99.5	108.9	101.7	105.1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1.4	-6.4	-9.7	-7.6	-9.0	-7.3	3.2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108.8	107.1	98.8	109.1	102.1	105.7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1.4	-6.7	-10.0	-7.6	-9.2	-7.5	3.2
섬유	113.4	2.0	-3.5	-3.9	-10.1	-7.8	-7.8	-12.8	-10.1	4.9
화학	854.2	8.6	-9.9	-16.9	-20.1	-20.4	-19.7	-20.0	-16.6	-2.7
철강	496.6	5.2	-8.5	-11.9	-23.3	-6.5	0.2	-1.0	-2.6	0.1
반도체	2,023.8	26.8	7.6	1.3	-19.8	-33.8	-26.9	-21.1	-16.7	4.4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14.2	10.8	0.7	22.6	-20.3	-11.5	12.9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4.3	-1.1	17.6	-15.1	-3.6	-18.3	-16.9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7.8	5.9	-4.3	-8.0	-15.7	-16.4	4.4
기계장비	737.3	12.1	1.1	7.2	5.4	0.7	4.9	-4.1	-6.8	6.1
자동차	987.5	6.3	9.1	18.8	17.5	21.6	27.1	16.7	18.5	8.7
조선	66.0	-7.2	20.7	21.2	23.4	19.6	11.6	5.7	-2.5	-3.9
중공업	-	9.9	1.5	1.2	-7.3	-10.7	-7.9	-9.1	-7.2	3.2
경공업	-	1.3	0.4	2.5	-4.0	-5.6	-6.2	-9.5	-9.9	2.7
제조업ICT	-	19.3	2.2	-2.1	-19.7	-30.5	-26.4	-22.0	-17.8	2.2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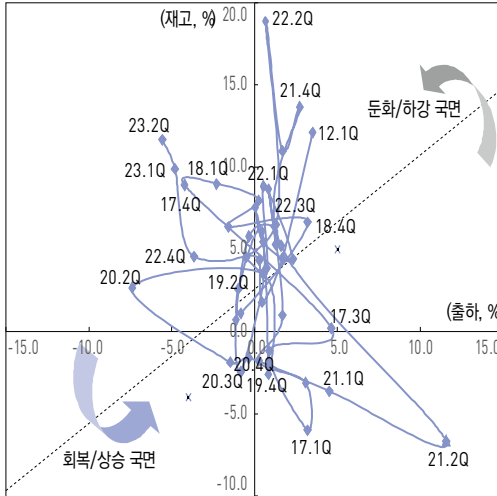
반면, 출하 감소폭이 축소(-6.7% → -2.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월보다 2.0%포인트 상승

□ 자동차·선박류·기계 수출 증가, 13대 품목 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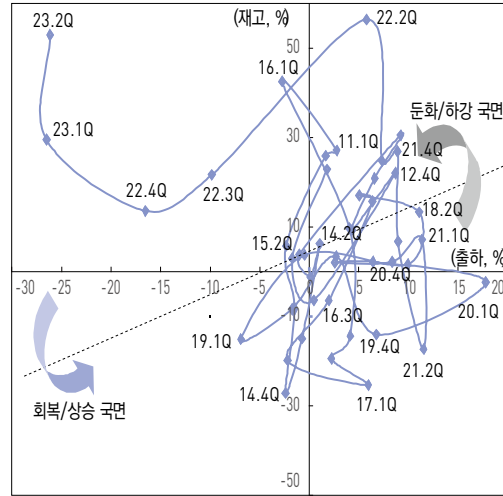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IT 관련 품목들과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섬유 등의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자동차와 일반기계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철강, 선박류, 가전 등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수출 감소폭의 둔화에 일조(5월 -15.2% → 6월 -6.0%)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2Q는 2023년 4월~5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2Q는 2023년 4월~5월 평균.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47.0	63.6	40.3	49.4	58.3
자동차부품	22.2	2.4	-1.1	-3.6	1.0	13.3	-5.6	-1.6	-0.8	5.7
선박류	16.4	-20.9	-22.6	1.9	21.1	-10.5	-26.1	59.2	-48.0	98.6
일반기계	4.6	2.0	-3.1	-2.0	5.8	12.9	-0.9	7.8	1.6	8.1
철강	36.9	5.7	-17.6	-15.8	-5.7	-9.9	-10.9	-10.7	-8.9	3.1
석유화학	54.8	-1.4	-25.1	-22.4	-24.1	-18.2	-24.6	-23.6	-26.5	-22.0
석유제품	57.7	64.9	18.0	-0.4	-34.3	10.2	-18.5	-28.7	-33.2	-40.9
섬유	14.0	-4.0	-18.7	-15.1	-11.0	-4.3	-12.1	-15.0	-14.9	-2.4
가전	24.0	-7.4	-24.0	-8.5	-7.5	4.3	-8.3	-10.3	-13.6	3.3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2.8	-20.7	-2.0	-42.5	-34.3	-12.1	-12.0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64.9	-57.6	-73.3	-57.5	-53.5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42.5	-34.5	-41.0	-36.2	-28.0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0	-41.6	-29.3	-7.4	-11.1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수입차 판매가 감소세를 마감하며 내수 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

- 6월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 판매량 증가로 전년동월비 11.6% 증가
 - 국산차 판매는 일부 업체의 신차 효과와 6월까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판매 확대로 10.4% 증가
 - 수입차 등록 대수는 공급물량 확대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효과로 17.9% 증가하며 3월부터 이어지던 감소세를 마감
- 6월 수출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1.3% 증가
 - 완성차는 수출 단가가 높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와 EU 지역에서의 소비자 인지도 개선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로 58.3% 증가
 - * 전기차 수출은 전년동월비 131.1% 증가하며 세 자릿수 증가 기록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18.8	17.5	21.6	27.1	16.7	18.5	-
	생산(전기비)	-	-	8.3	-1.2	5.8	6.4	0.8	8.7	-
	출하	5.3	8.0	19.1	15.9	21.5	29.4	14.5	20.5	-
	재고	-6.4	23.7	3.2	23.7	23.3	23.3	30.2	22.7	-
	가동률	1.8	5.6	16.0	11.3	13.0	15.5	5.4	7.5	-
	내수판매동향	-9.0	-2.2	5.6	9.5	15.6	21.0	4.6	5.7	11.6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23.3	19.3	27.9	39.1	27.5	33.3	41.3
	수입	10.2	8.0	12.8	28.7	18.9	10.9	20.2	5.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부품은 국산차의 해외 판매량 증가와 현지 공장의 생산 정상화로 5.7%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5월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내수 시장 확대로 전년동월비 18.5% 증가
 - 일부 브랜드의 신차 수출 확대와 전기차 생산 증가로 출하와 재고가 각각 20.5%, 22.7% 증가
 - 전기차와 대형차 생산 증가로 전월비 생산도 8.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3) 조선

□ 생산지표는 둔화하였으나, 수출은 증가 전환

- 높은 금리 환경, 무역분쟁 그리고 환경규제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동기비 34.3% 감소한 1,781만 CGT를 기록하였으나, 선가 지수는 171.3으로 지속해서 상승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조선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보이나, 수주잔량이 풍부한 우량조선사의 선별 수주로 발주는 감소하고 선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하여 7월 초 수주잔량은 전년동월비 8.3% 증가한 3,880만 CGT를 기록하였으며, 수주잔량 중 대체연료 선박의 비중은 73.4%로 중국 30.4%, 일본 13.5%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
 - 5월 생산, 출하, 가동률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영향과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소폭 둔화
 - * 클락슨 신조선가치수: (6월 2일) 170.4 → (7월 7일) 171.3(0.6%)
 - * 누적 수주량: (2022년 6월) 1,038만 CGT → (2023년 6월) 516만 CGT(-50.3%)
 - * 벌크선 운임지수(BDI): (6월 5일) 939.0 → (7월 5일) 994.0(5.9%)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6월 2일) 1,028.7 → (7월 7일) 931.7(-9.4)
- 6월 수출은 대량의 컨테이너선과 LPG운반선, 탱커선,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인도되며 98.6% 증가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21.2	23.4	19.6	11.6	5.7	-2.5	-
	생산(전기비)	-	-	-0.3	8.1	1.3	-8.1	-1.1	-3.9	-
	출하	-8.1	14.0	11.4	9.6	1.2	-5.7	-8.0	-11.1	-
	가동률	-0.7	23.1	21.1	25.4	16.1	7.3	5.3	-4.3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5.9	-22.6	1.9	-26.2	59.2	-48.0	98.6
	수입	6.1	-13.2	-32.7	-2.4	-38.6	-30.1	-62.3	-28.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 선가 급상승기에 수주한 대량의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 탱커와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수출되며 전년동월비 급증
- 5월 수입은 선박용 엔진과 선박용 부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중국으로부터 선박 수입 감소가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전년동월비 28.5% 감소
 - 선박생산 증가로 선박용 엔진과 선박용 부품의 수입은 전년동월비 각각 123.8%, 127.8% 증가
 - 선박용 엔진 및 부품은 이탈리아와 미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선박용 부품은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의 수입이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은 내수 부진 심화로 감소세 지속, 수출은 증가폭 확대

- 5월 생산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심화로 전년동월비 6.8% 감소
 - 내수출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국내 기계수주 역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생산 위축 심화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7.2	5.4	0.7	4.9	-4.1	-6.8	-
	생산(전기비)	-	-	8.6	0.5	-8.9	-1.1	-7.9	6.1	-
	출하	11.6	0.3	7.1	4.9	-1.1	2.1	-1.6	-4.7	-
	재고	18.3	20.1	16.0	20.1	27.5	27.5	17.9	17.4	-
	가동률	7.3	6.2	11.0	9.7	9.5	13.5	3.3	0.3	-
교역 동향	수출	4.6	2.0	0.2	-3.1	-2.0	-0.9	7.8	1.6	8.1
	수입	9.6	0.7	4.2	-3.3	0.5	-2.2	13.0	1.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3월) -0.1 → (4월) -1.1 → (5월) -4.7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3월) 4.5 → (4월) 12.8 → (5월) -3.9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3월) -9.0 → (4월) 2.4 → (5월) -11.7
- 재고율(재고/출하)은 두 자릿수 재고 누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평균(123.3%)을 상회하는 144.7% 기록
- * 재고율(%): (2023년 3월) 151.4 → (4월) 153.3 → (5월) 144.7
- 가동률은 생산활동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상승세가 점차 둔화
- 6월 수출은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권역에서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비 8.1% 증가
 - 대미국 수출은 건설부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 중장비 수요 확대로 최근 3개월간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 중동지역 수출 역시 플랜트, EPC 프로젝트 신규 수주로 큰 폭의 수출실적을 유지
 - 반면, 대중국 수출은 경기 회복 지연 및 자국산 기계류·부품류 자급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28.1% 급감하며 부진세 완연
 - * 6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9.5, 23.4%), EU(4.4, 0.7%), 중국(4.2, -28.1%), 중남미(2.3, 25.7%), 중동(1.8, 57.9%)

- 5월 수입은 28억 3,6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0%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농기계(37.7%), 건설광산기계(37.7%), 원동기 및 펌프(17.5%), 식품가공 포장기계(15.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55.4%), 금형(-38.5%), 제지인쇄기계(-11.0%) 등은 감소

(5) 철강

□ 건설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폭 확대, 수출은 증가세 전환

- 5월 철강 생산은 건설산업 부진에 따른 봉형강류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비 2.6% 감소
 -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출하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지수는 전월보다 증가
 - 품목별로는 건설용 주요 철강 제품인 봉형강류의 생산이 -4.9%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자동차 및 조선산업 경기 회복으로 중후판(0.9%), 용융아연도강판(3.4%) 등 일부 판재류의 생산은 증가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0.9%), 봉형강류(-4.9%), H형강(-7.0%), 철근(-0.4%), 선재(-23.7%), 판재류(0.5%), 열연강판(4.6%), 중후판(0.9%), 용융아연도강판(3.4%), STS 핫코일(-48.6%), STS 냉연강판(-10.5%), 전기강판(-36.4%), 강판(-2.5%)
- 6월 수출은 미국,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물량 확대로 전년동월비 3.1% 증가하며 증가세 전환
 - 6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193달러로 전년동월비 19.7% 하락하였으나 수출물량 회복으로 전체 수출금액은 증가
 - 중동 내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중동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중국,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수요 부진과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6월) 1,526 → (2023년 6월) 1,193(-19.7%)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9.1%), 아세안(-13.9%), 미국(15.0%), 중동(160.0%)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11.9	-23.3	-6.5	0.2	-1.0	-2.6	-
	생산(전기비)	-	-	-9.7	-15.5	23.2	7.0	-1.8	0.1	-
	출하	4.5	-7.0	-8.5	-13.5	-5.0	-0.6	-1.2	-0.1	-
	재고	14.4	-9.8	9.3	-9.8	-2.2	-2.2	3.4	4.4	-
	가동률	5.5	-8.7	-12.3	-23.9	-7.0	-0.4	-1.2	-2.6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5.2	-17.6	-15.8	-10.9	-10.7	-8.9	3.1
	수입	50.1	2.0	-20.8	-17.8	-8.6	-12.4	-12.8	-17.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 5월 수입은 내수 부진과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7.6% 감소
 - 5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1,078.3달러로 지난해 5월(1,232.7달러/톤) 대비 12.5% 하락하며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
 - 국가별로는 중국(-11.4%), 일본(-18.2%), 미국(-48.8%)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이 10% 이상 감소
 - 품목별로는 중국산 중후판, 냉연강판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봉형강류의 수입 감소로 총수입물량은 전년동월비 감소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1.4%), 일본(-18.2%), 미국(-48.8%), 베트남(-52.4%), 대만(-28.9%), 인도(-1.1%)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60.8%), 중후판(8.9%), 열연강판(6.3%), H형강(-42.0%), 철근(-31.7%), 선재(-19.3%), 용융아연도강판(-4.0%)

(6) 정유

□ 수출은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4개월 연속 감소

● 5월 생산 및 수출 물량은 확대되었으나 내수가 감소하며 재고 물량이 증가

- 내수는 항공유와 윤활유를 제외한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5.2% 감소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44.7%), 휘발유(-8.0%), 경유(-9.5%), 윤활유(16.2%), 아스팔트(-8.4%), 나프타(-3.3%), 병커C유(-23.0%), LPG(-10.3%)

- 수출물량은 전체에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0.8%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LPG(171.8%), 병커C유(114.5%), 나프타(32.8%), 휘발유(14.0%), 경유(7.1%), 윤활유(-10.1%), 항공유(-14.4%), 아스팔트(-17.0%)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4.5	-2.1	0.2	1.6	0.0	11.7	-
	생산(전기비)	-	-	2.4	-3.2	0.4	3.0	-1.0	9.3	-
	출하	-0.7	2.3	8.0	-1.1	4.4	7.7	4.3	4.7	-
	재고	12.6	-2.5	3.5	-2.5	-7.2	-7.2	-4.8	18.8	-
	가동률	1.8	1.9	4.6	-2.0	0.5	1.5	-0.2	11.6	-
	내수판매동향	7.0	1.1	0.2	-2.0	-2.9	3.0	-4.9	-5.2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78.2	18.0	-0.4	-18.5	-28.7	-33.2	-40.9
	수입	86.0	10.9	-4.7	-20.1	-13.9	-19.1	-39.9	-25.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6월 수출액은 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40.9% 감소
 - 수출액은 물량의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및 수출단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40% 이상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6월) 113.3 → (2023년 6월) 75.0(-33.8%)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6월) 1,225 → (2023년 6월) 714(-41.9%)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6월) 55.8 → (2023년 6월) 33.0(40.9%)
 - 지역별로는 단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전년동월비 크게 감소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미국(-35.1), EU(-47.0), 아세안(-47.7), 중남미(-92.8)

(7) 석유화학

- 국내외 석유화학제품 수요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감소하며 국내 생산 및 수출액 감소세 지속
- 5월 석유화학제품 국내 생산 및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16.6%, 10.2% 감소했고 가동률도 하락(-16.2%)
 - 5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67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분기 수준에서 횡보
 - 중국 리오프닝이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생산을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
 - 동아시아 시장 내 여름철 PET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 및 수출용 PX와 TPA 제품 생산량은 증가세로 전환
- 6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22.0%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33.8% 및 23.9%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6월) 113.3 → (2023년 6월) 75.0(-33.8%)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6월) 1,632 → (2023년 6월) 1,234(-23.9%)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16.9	-20.1	-20.4	-19.7	-20.0	-16.6	-
	생산(전기비)	-	-	-12.3	-4.9	1.6	-0.5	0.8	-2.7	-
	출하	6.1	-9.5	-13.8	-16.7	-13.6	-14.2	-11.7	-10.2	-
	재고	21.9	-3.9	-5.0	-3.9	-2.5	-2.5	-4.5	-6.0	-
	가동률	8.2	-10.1	-15.9	-18.9	-18.9	-17.1	-15.6	-16.2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9.7	-25.1	-22.3	-24.6	-23.6	-26.5	-22.0
	수입	36.1	-2.3	-0.9	-21.4	-16.7	-12.9	-19.4	-19.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중국산 석유제품 수출이 부진하며 국산 합성원료 수입수요가 감소한 동시에 자국 내 생산시설 가동률 증가로 합성수지 수입도 감소하는 모습

* 중국 내 Sinopec Hainan, PetroChina Jieyang, Shanjing Chemical 등 신증설 생산설비발 공급물량 증가

- 스프레드 위축의 영향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일본, 중동, 아세안향 수출액 감소 뚜렷

* 6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21.4%), 아세안(-26.6%), 중동(-36.0%), 일본(-36.8%)

- 동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과잉공급 상황 지속, 제품 스프레드 위축에 따른 국내 수입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액 감소세 지속

(8) 석유

□ 내수·수출 위축에 따른 업황 부진 지속

● 5월 생산은 실물경기 부진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물가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 및 수출 부진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2	-1.9	-9.2	-8.8	-9.0	-17.2	-14.2	-
	생산(전기비)	-	-	-1.8	-10.2	-9.6	-10.5	-15.8	-11.1	-
	출하	3.8	-5.7	-4.3	-10.8	-6.6	-6.1	-14.0	-11.7	-
	재고	-5.7	-0.1	-3.3	-0.1	1.1	1.1	0.5	-1.1	-
	가동률	7.7	5.3	6.3	-4.4	-5.5	-7.6	-12.4	-10.3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5.8	-18.7	-15.1	-12.1	-15.0	-14.9	-2.3
	수입	12.9	8.8	17.0	-5.3	-0.8	3.4	-7.4	-10.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5월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의 소매 판매액지수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며 내수 부진 심화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 (3월) 9.0 → (4월) -3.3 → (5월) -5.8
 -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전년동월비, %): (3월) 11.8 → (4월) -4.0 → (5월) 2.9
- 품목별 생산은 섬유소재, 의류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여 국내 제조 활동 위축, 특히 화학섬유는 금년 상반기 범용 PF 사업 중단에 따른 큰 폭의 감산 지속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 (3월) -5.6 → (4월) -19.0 → (5월) -14.3
 - * 원사(전년동월비, %): (3월) -9.2 → (4월) -5.7 → (5월) -8.6
 - * 직물(전년동월비, %): (3월) -2.3 → (4월) -10.6 → (5월) -7.5
 - * 편물(전년동월비, %): (3월) -7.1 → (4월) -6.5 → (5월) -20.8
 - * 염색가공(전년동월비, %): (3월) -12.1 → (4월) -21.9 → (5월) -14.5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 (3월) -31.7 → (4월) -38.3 → (5월) -42.3
- 6월 수출은 세계 인플레이션 지속, 경기 부진 등으로 의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의 동반 감소로 감소세 지속
 - 미국, EU 등의 의류 수요 부진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의류용 소재 소싱 오더가 감소하며

대아시아 수출 감소

- 대미 수출은 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에 소비심리 위축 및 산업활동 위축으로 의류와 산자용 섬유소재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대중 수출 증가는 중국 리오프닝, 일상 정상화 이후 단체 해외여행 재개화 및 내수 개선에 따른 의류의 수입수요 증대에 기인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2년 6월) 10.2(-9.2%) → (2023년 6월) 9.9(-2.3%)
 - * 6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2.8, -6.9%), 미국(1.1, -3.8%), 중국(1.0, 1.0%)

(9) 가전

□ 기저효과와 안정적인 해외 수요로 수출이 소폭 증가로 전환

- 5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0.4% 감소, 전월비로는 3.2% 증가
 -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를 지속하면서 생산도 감소세를 지속
 - 조명기기 분야는 전구 수출 호조로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생활가전 분야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은 감소
 - 생활가전 분야의 판매 부진과 생산 위축이 계속되면서 재고는 전년동월비 5.9% 감소,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16.5% 하락
- 6월 수출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3% 증가
 - 2022년 6월부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년 수준의 안정적인 해외 수요로 2023년 6월 수출은 증가로 전환
 - * 6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47.5 → (2022년) -15.6 → (2023년) 3.3
 - 미국과 아세안의 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 반면 EU는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양상을 보이며 수출 감소
- 5월 수입은 내수 감소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4.8% 감소
 - 내수 위축으로 1, 2위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은 감소세를 유지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13.8	-13.3	-19.1	-13.8	-21.5	-20.4	-
	생산(전기비)	-	-	-12.8	-7.0	5.1	-6.1	-1.0	3.2	-
	출하	-10.3	-0.6	-7.4	-8.4	-12.2	-14.7	-20.8	-21.6	-
	재고	1.2	-5.3	-4.3	-11.0	-8.7	-11.3	-13.8	-5.9	-
	가동률	1.3	-9.6	-16.2	-21.1	-16.1	-10.6	-17.4	-16.5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15.0	-24.0	-8.5	-8.3	-10.3	-13.6	3.3
	수입	19.1	-5.0	-1.7	-14.5	-10.2	3.9	-9.4	-4.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와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감소폭은 완화
- 품목별로는 TV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음향기기, 대형세탁기, 헤어드라이어 등의 수입은 증가

(10) 무선통신기기

□ 6월 수출은 12.0% 감소, 하반기 수요 회복 전망 우세

- 6월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2.0% 감소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비 16.6% 감소
 - 세계적인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연장되고 프리미엄급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2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감소하나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4년부터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

- *가트너(2023. 6)는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11.9%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비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IDC(2023. 6)는 2023년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3.2% 감소한 11억 7,000만 대를 기록하고, 2024~2027년 기간 동안 연평균 2.3% 증가하여 2027년에는 13억 5,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5월 생산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8.3% 감소하고, 출하도 5.9% 감소
 - 재고는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14.8%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은 24.3% 큰 폭 하락
 -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하강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트렌드포스(2023. 6)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5,000만 대로, 2014년 1분기 이래 가장 적은 물량
 - * 2024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5.9%, 2025년에는 7.5%, 2026년에는 4.7%로 글로벌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
 - 3분기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및 본격적 수요 회복 기대감 고조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6)에 따르면,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7개월째 판매량 순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8월경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하고, 애플 역시 10월경에 아이폰 15를 출시할 예정
- 5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2.7%, 전월비 0.3% 증가하였으며, 가입자 기반 단말(웨어러블 기기 등)과 사물지능통신(IoT) 회선 수는 전년비 각기 10.4%, 24.5% 증가
 - 특히 웨어러블 기기 가입회선 수가 전년동월비 38.0% 큰 폭 증가했으며, 사물지능통신 회선 수는 24.5% 증가
 - *태블릿PC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1.2%, 전월비 0.7% 각각 감소
- 5월 수입은 스마트폰 및 부품 수입의 큰 폭 감소로 전년비 28.1% 감소
 - 외국 주요 기업 플래그십 모델로의 교체수요 감소 및 전반적 수요 부진 지속으로 스마트폰 수입은 전년동월비 59.4% 감소하고 부품 수입은 44.8% 감소
 - *무선 교환기 및 중계기 수입은 10.4% 감소했으며, 방송용 통신기기 수입 역시 83.8% 감소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4.3	-1.1	17.6	-15.1	-3.6	-18.3	-
	생산(전기비)	-	-	9.9	-3.1	16.0	-29.4	11.6	-16.9	-
	출하	25.0	-2.1	6.7	3.1	12.7	-15.6	0.5	-5.9	-
	재고	0.1	5.8	-0.4	5.8	32.1	32.1	9.9	14.8	-
	가동률	28.7	-6.1	0.9	-15.5	10.2	-20.7	-8.2	-24.3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14.9	-19.0	-12.8	-42.5	-34.3	-12.1	-12.0
	수입	17.2	-7.2	0.1	-20.2	-3.8	-36.5	-27.8	-28.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11) 반도체

□ 여전히 반도체산업 경기는 불투명

- 5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16.7% 감소, 출하도 -20.5%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 감소율은 축소 중
 -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대의 수출 및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생산은 전년동월비 계속 감소 중이나, 그 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비 실적은 3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양새
 - 가동률은 전기비 23.1% 줄어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재고 증가율이 여전히 높아 반도체 기업의 감산 효과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 2023년 6월 수출액은 88억 9,6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8.0% 감소하였고 장기간의 증가세가 꺾인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
 - 수출은 2020년 7월 이후 전년동월비 2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6월에 소폭 축소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1.3	-19.8	-33.8	-26.9	-21.1	-16.7	-
	생산(전기비)	-	-	-10.0	-15.8	-9.1	30.9	4.9	4.4	-
	출하	21.5	0.5	-9.2	-17.5	-32.9	-18.3	-33.5	-20.5	-
	재고	27.1	15.9	24.6	15.9	43.4	42.5	80.8	84.7	-
	가동률	6.0	-3.4	-12.0	-28.1	-39.4	-32.7	-27.5	-23.1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3.9	-25.8	-40.1	-34.5	-41.0	-36.2	-28.0
	수입	22.1	21.8	23.6	7.7	-10.4	-10.5	-15.9	-14.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 6월 반도체 수출 실적은 올해 가장 양호하여 반도체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계절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향후 소비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
- 반도체 수입은 국내 산업 발달과 수요 증가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6개월 연속 감소 중

(12) 디스플레이

□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 5월 생산은 전자기기 수요 축소로 둔화 지속

-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전자기기 수요 축소가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전년동월비 19.9% 감소
- 하반기에는 폴더블폰과 LTPO 적용 OLED 스마트폰의 판매량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에 이어질 것
- 국내 기업 간 TV용 패널 협력 추진은 대형 패널의 수요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효과는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7	-14.7	-15.9	-26.3	-33.0	-30.3	-39.9	-19.9	-
	생산(전기비)	-	-	-8.1	-7.7	-9.6	9.9	-4.1	0.2	-
	출하	-9.5	-17.5	-19.0	-29.0	-30.5	-20.3	-24.7	-33.2	-
	재고	38.5	-24.9	1.9	-24.9	-30.3	-29.7	-24.3	-11.5	-
	가동률	-7.3	-6.5	-6.4	-8.2	0.3	8.5	3.8	16.9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30.5	-19.9	-19.9	-41.6	-29.3	-7.4	-11.1
	수입	-12.8	30.9	79.8	31.2	31.2	-16.3	-26.4	-23.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4월 및 5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6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6월 패널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11.1% 감소하였으며, 13개월 연속 감소세
 - LCD 수출은 국내 생산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21.7% 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감소 중
 -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으로 OLED 수출은 6.6% 감소하였으나, 10억 달러 수출 규모는 유지
 - 최대 수출 지역인 대아세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축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
- * 지역별 증가율(%): 아세안(3.4), 중국(-32.5), 유럽(110.9), 중남미(32.6)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5월 생산, 전년동월비 2.0% 증가

- 5월 생산은 2.0%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금융·보험업 등이 지난달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의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이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실적 악화로 인해 1.4% 감소
- 운수·창고업은 항공여객운송업(138.6%)이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상운송업도 3월(-14.8%) 이후 감소세가 완화되며 7.5% 증가
 - 하지만 올해 초부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실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감소세는 확대됨에 따라 전체 운수·창고업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증가폭도 지난달 12.7%에서 3.4%로 크게 감소하고, 음식점 및 주점업(-5.8%)이 감소하며 4.7% 감소
 - 2021년 3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기록
- 정보통신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4.1%)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실적이 감소하며 5.4% 감소
 - 출판업, 정보서비스업의 실적 감소폭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 감소세 전환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9.3%), 보험 및 연금업(19.5%)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며 9.8%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들의 실적이 소폭 증가하며 각각 1.7%, 2.3%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4.5%)의 실적이 감소하여 0.4% 증가에 그쳤으며,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지식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의 실적 둔화로 인해 3.0% 증가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3월	4월*	5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7.9	111.7	117.5	113.9	115.0
상승률	-2.0	5.2	6.8	5.6	6.0	6.0	2.9	2.0
전기비	-	-	-	0.1	1.2	-0.4	-0.5	-0.1
도·소매	-2.6	5.3	2.6	0.2	1.1	0.5	-2.6	-1.4
운수·창고	-14.1	4.2	17.7	17.7	17.2	18.6	12.3	7.5
숙박·음식점	-18.4	1.9	16.9	9.8	16.4	17.9	1.8	-4.7
정보통신	1.5	12.2	1.8	-1.0	-2.0	-3.6	-3.9	-5.4
금융·보험	14.0	8.0	8.4	12.5	11.1	10.3	9.9	9.8
부동산	5.5	2.3	7.9	6.0	4.3	5.8	2.3	2.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0.3	1.5	2.8	0.9	1.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4.2	5.8	6.4	4.9	2.3
교육	-4.5	1.5	1.2	0.3	0.5	0.9	-0.5	-0.4
보건·사회복지	1.5	5.1	7.2	6.3	5.7	5.0	3.0	3.9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26.6	19.7	23.5	12.7	0.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5.9	12.9	18.0	4.2	3.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4.8	7.7	1.1	-4.2	-2.2
지식서비스	3.1	6.0	4.7	4.5	4.4	4.0	3.0	3.0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2) 고용

□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69만 6,000명(3.5%) 증가

- 5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취업자 수 증가로 69만 6,000명(3.5%) 증가하였으며, 지난 달 대비 23만 5,000명(1.2%)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3월	4월	5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19,890	19,788	20,033	20,177	20,412
증감률	-1.3	1.6	3.0	2.2	2.4	3.0	3.2	3.5
전기비	-	-	-	-0.1	-0.5	1.1	0.7	1.2
도·소매	-4.4	-4.3	-1.2	-2.1	-2.0	-2.1	-1.4	-1.0
운수·창고	3.6	7.0	4.4	-0.4	-2.1	-2.5	0.2	0.0
숙박·음식점	-6.9	-2.1	4.0	9.6	9.0	7.9	9.3	9.0
정보통신	-1.6	6.4	8.9	5.7	6.4	5.2	5.5	6.7
금융·보험	-2.7	2.8	-3.3	-2.6	1.5	0.6	0.8	2.8
부동산	-7.0	2.7	4.0	0.4	-0.4	-1.3	-0.7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3.7	3.4	3.7	7.0	10.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7	-0.6	0.2	1.8	-0.3
공공행정·국방	3.3	2.8	6.1	5.8	3.1	7.3	4.8	3.1
교육	-4.6	2.3	3.4	1.6	0.1	2.4	1.0	1.7
보건·사회복지	5.9	8.5	7.1	5.8	7.8	9.5	7.0	7.2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2.5	6.0	10.8	8.3	11.0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0.5	2.5	2.1	2.6	1.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15.1	-13.9	-11.4	-11.1	-3.2
지식서비스	0.2	5.4	5.0	3.5	4.3	5.3	4.7	5.8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9만 5,000명(7.2%) 증가하며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19만 1,000명(9.0%)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10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매월 10만 명 이상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12만 9,000명, 10.3%), 정보통신(6만 6,000명, 6.7%), 예술·스포츠·여가(5만 3,000명, 11.0%), 교육서비스(3만 2,000명, 1.7%), 금융·보험(2만 1,000명,

- 2.8%),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2만 명, 1.8%)도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작년 2월(10만 5,000명) 이후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 기록
 - 금융·보험은 작년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올해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 폭이 차츰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도·소매업(3만 3,000명,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만 9,000명, -3.2%)은 감소
 - 도·소매업은 작년 9월부터 점차 커졌던 감소폭이 올해 2월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의 영향으로 44만 3,000명(5.8%) 증가

(3) 서비스수지

□ 5월 서비스수지 9억 1,100만 달러 적자

- 5월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운송, 여행, 보험,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적자로 인해 9억 1,100만 달러 적자 기록
 - 운송, 여행 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지식재산권사용료,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지의 흑자 증가 또는 적자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2억 9,500만 달러 증가
- 운송수지는 3억 7,800만 달러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
 - 해상운송수지의 적자 규모가 지난달 대비 크게 확대되며 전체 운송수지 적자 전환 주도
 - 항공운송수지, 우편 및 상업송달서비스 수지의 흑자 규모도 소폭 감소
- 여행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3억 2,100만 달러 증가
 -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일반여행수입도 증가하였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회복되면서 일반여행지급이 3억 달러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건설수지의 흑자 규모는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억 7,500만 달러 기록
 - 2020년 12월 약 7억 5,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큰 흑자 규모이며, 전월 대비 증가폭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3월	4월	5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2,280	-7,203	-1,904	-1,205	-911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600	-1,653	-527	-540	-500
유지보수	-913	-1,006	-1,621	-538	-419	-151	-112	-163
운송	2,132	15,427	13,121	1,363	-118	-17	32	-345
여행	-5,630	-6,226	-7,929	-2,380	-3,235	-739	-499	-819
건설	4,770	4,100	5,253	1,555	1,068	391	332	675
보험	-336	-295	40	174	1	8	-51	-73
금융	1,757	1,647	310	-27	113	165	182	194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982	-1,374	-426	-191	8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85	910	293	145	407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168	-2,662	-920	-546	-362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483	285	71	42	84
정부	-629	-658	-506	-76	-118	-52	-2	-15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도 2019년 5월 이후 가장 큰 규모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약 2억 달러 증가하며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와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가 모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흑자 전환을 주도
 - 반면,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는 수입이 1억 달러 이상 감소한 반면, 지급은 1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지는 흑자 규모가 약 2억 6,000만 달러 증가
 - 통신서비스수지의 적자 전환 및 정보서비스수지의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서비스수지가 약 2억 9,000만 달러 증가하며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수지의 흑자 규모가 확대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도 1억 8,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적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기술, 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흑자가 1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서비스수지가 2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가공서비스수지, 유지보수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도 흑자 규모가 소폭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5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3% 감소
 - 제주(1.9%), 강원(0.6%) 두 지역만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경기(-14.2%), 충북(-10.0%), 부산(-9.5%)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전국		8.2	1.4	5.6	1.4	-6.4	-9.7	-8.2	-7.6	-9.0	-7.3
수도권	서울	9.1	-2.0	-1.4	-4.7	-10.5	-13.3	-7.8	-18.9	-6.8	-8.9
	인천	13.2	1.0	-0.4	11.3	4.8	3.6	7.1	4.4	3.0	-7.0
	경기	14.3	4.1	12.3	2.5	-10.5	-23.4	-26.3	-20.4	-18.2	-14.2
충청권	대전	4.2	-1.4	-5.1	-1.4	-1.4	-2.5	3.3	-7.6	-6.0	-6.4
	세종	10.4	3.3	3.9	0.9	3.4	-5.2	-1.9	-5.6	-1.8	-0.9
	충북	14.4	-0.8	12.5	-3.6	-13.9	-11.6	-2.2	-15.7	-10.6	-10.0
	충남	12.0	-0.2	0.5	-2.2	-1.7	-6.0	-2.2	-4.8	-6.3	-3.1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호남권	광주	7.3	3.2	3.2	10.8	-2.6	2.8	9.8	4.2	-0.8	-6.0
	전북	7.8	2.9	1.5	6.8	0.3	-3.4	-2.1	1.0	-1.1	-5.8
	전남	8.0	-2.9	-0.4	-3.9	-11.2	-3.5	-1.7	1.2	-5.7	-4.4
대경권	대구	11.5	5.0	2.8	8.0	5.9	5.2	10.8	4.6	-0.2	-3.4
	경북	4.8	-1.4	0.3	3.5	-6.0	-0.1	6.1	-2.8	-3.7	-7.1
동남권	부산	2.4	9.7	8.3	15.9	7.7	-1.3	4.6	-4.7	-5.5	-9.5
	울산	6.6	-1.0	0.9	-3.0	-3.8	-1.7	5.8	3.7	-3.8	-3.0
	경남	3.9	5.7	4.7	6.3	5.4	2.8	8.4	3.2	-5.7	-2.5
강원권		1.7	5.7	7.6	6.8	4.9	8.2	20.3	4.8	-0.4	0.6
제주권		5.4	6.7	3.5	5.7	4.9	0.5	10.1	-0.2	0.2	1.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5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83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2% 증가
 - 전년동월비 경북(-0.1%)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종(5.5%), 강원(4.2%), 대구(3.5%)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347 (3.2)	28,425 (2.8)	28,216 (2.2)	27,767 (1.5)	27,714 (1.1)	28,223 (1.7)	28,432 (1.3)	28,835 (1.2)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34 (1.0)	5,133 (1.1)	5,127 (0.5)	5,096 (0.7)	5,089 (0.3)	5,144 (1.3)	5,147 (0.5)	5,220 (1.5)
	인천	1,563 (0.2)	1,614 (3.3)	1,614 (2.5)	1,639 (4.1)	1,641 (4.5)	1,613 (3.3)	1,619 (2.7)	1,622 (2.6)	1,647 (3.6)	1,669 (3.0)
	경기	7,150 (3.5)	7,597 (6.3)	7,698 (7.6)	7,694 (6.1)	7,606 (3.6)	7,476 (1.1)	7,455 (0.6)	7,570 (1.2)	7,610 (0.1)	7,752 (0.2)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789 (0.3)	797 (0.0)	805 (1.1)	794 (1.4)	799 (1.7)	795 (1.3)	795 (1.0)	801 (1.0)
	세종	185 (2.8)	197 (6.5)	199 (5.9)	201 (6.3)	202 (9.2)	203 (8.6)	201 (8.1)	207 (6.7)	210 (7.1)	212 (5.5)
	충북	897 (0.8)	926 (3.2)	940 (3.6)	938 (3.1)	930 (1.8)	908 (1.3)	905 (1.5)	945 (2.9)	949 (2.3)	955 (1.4)
	충남	1,193 (1.4)	1,226 (2.8)	1,241 (2.0)	1,267 (2.9)	1,245 (3.0)	1,178 (2.4)	1,162 (2.8)	1,223 (2.2)	1,255 (2.8)	1,281 (2.6)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49 (-0.4)	754 (0.4)	757 (2.3)	759 (2.6)	759 (2.6)	766 (2.1)	770 (3.5)	766 (1.9)
	전북	953 (2.3)	968 (1.6)	986 (2.5)	991 (2.2)	961 (0.6)	954 (2.1)	963 (3.2)	969 (2.3)	980 (0.4)	997 (0.6)
	전남	985 (1.1)	1,010 (2.5)	1,024 (2.9)	1,021 (2.0)	1,016 (2.0)	1,003 (2.2)	1,003 (1.8)	1,027 (3.3)	1,035 (2.2)	1,046 (0.9)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33 (0.3)	1,239 (0.6)	1,226 (0.1)	1,220 (0.4)	1,222 (0.7)	1,241 (1.2)	1,236 (0.8)	1,284 (3.5)
	경북	1,410 (-0.6)	1,462 (3.7)	1,492 (5.3)	1,486 (3.3)	1,464 (2.5)	1,426 (1.5)	1,428 (2.1)	1,464 (1.2)	1,492 (1.4)	1,504 (-0.1)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81 (0.7)	1,696 (0.8)	1,692 (2.0)	1,680 (2.1)	1,663 (0.2)	1,698 (2.6)	1,695 (1.9)	1,700 (0.5)
	울산	555 (-0.9)	566 (2.0)	569 (3.1)	572 (2.5)	571 (2.0)	564 (2.4)	562 (2.7)	570 (2.3)	572 (2.0)	574 (0.2)
	경남	1,732 (0.2)	1,740 (0.5)	1,766 (0.2)	1,744 (-0.9)	1,740 (0.9)	1,715 (0.2)	1,707 (-0.1)	1,758 (0.5)	1,781 (1.0)	1,795 (1.5)
강원권		809 (1.8)	818 (1.1)	838 (0.7)	848 (0.8)	820 (0.0)	786 (2.7)	786 (1.7)	833 (4.6)	861 (4.2)	878 (4.2)
제주권		383 (1.3)	402 (5.0)	397 (2.3)	404 (6.3)	413 (6.2)	392 (-0.3)	391 (-0.3)	393 (-1.0)	398 (1.3)	402 (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감소한 522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구(16.8%), 인천(11.3%), 강원(4.4%)은 전년동월비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기록했고, 전남(-44.3%), 충남(-35.1%), 세종(-33.3%)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전국		25.7	6.1	13.0	5.8	-10.0	-12.7	-7.7	-13.8	-14.4	-15.2
수도권	서울	28.5	-2.4	0.5	-3.3	-12.9	-6.7	1.9	-1.0	-3.8	-4.6
	인천	25.7	14.5	21.7	23.4	-9.3	-5.4	-1.8	-6.6	4.2	11.3
	경기	19.7	-0.3	6.0	-2.0	-16.4	-18.0	-12.4	-17.4	-20.5	-16.3
충청권	대전	-1.3	-5.4	10.2	-8.9	-18.3	-13.2	3.0	-15.5	-9.9	-32.2
	세종	17.8	5.8	21.3	5.7	-15.4	-34.5	-39.5	-36.2	-30.9	-33.3
	충북	15.7	12.7	25.1	15.2	-1.0	-8.0	-4.9	-12.8	-13.7	-18.9
	충남	30.9	3.2	14.4	-3.8	-20.6	-35.4	-35.4	-31.9	-39.2	-35.1
호남권	광주	20.6	8.1	12.1	19.0	-1.6	5.8	11.0	5.2	-9.7	-3.9
	전북	33.9	5.1	7.2	2.4	-11.2	-14.3	-5.6	-12.8	-1.8	-12.0
	전남	59.8	14.2	31.5	13.6	-13.3	-17.1	-20.2	-18.3	-19.3	-44.3
대경권	대구	26.6	34.1	36.1	46.5	28.1	27.6	48.5	31.8	17.1	16.8
	경북	19.5	5.8	13.9	-1.1	-8.7	-5.2	8.2	-19.9	-12.8	2.6
동남권	부산	30.9	9.3	12.1	7.8	-6.9	-6.7	-10.5	0.8	-16.5	-1.9
	울산	32.4	21.3	24.2	25.8	8.9	0.5	11.1	-5.1	-11.6	-14.7
	경남	9.4	-7.2	-6.7	-1.4	-5.6	-1.8	-0.4	-7.2	28.8	4.3
강원권		34.9	0.8	12.7	-11.7	-12.4	-15.9	-7.8	-18.6	-22.5	4.4
제주권		47.1	-13.6	-16.7	-31.0	-18.5	-24.1	-25.0	-27.3	-25.0	-23.5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8.9%), 고용 증가(1.5%), 수출 감소(-4.6%)
 - 주요 업종인 식료품(8.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26.3%), 의복 및 모피제품(-17.2%)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과 제조업(6.5%)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0.6%), 비누치약 및 화장품(7.2%)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 수지(-32.4%), 석유제품(-23.0%)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인천

- 생산 감소(-7.0%), 고용 증가(3.0%), 수출 증가(11.3%)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8%) 등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9%)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3%)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7.1%)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04.1%), 반도체(29.4%)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경기

- 생산 감소(-14.2%),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감소(-16.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9.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5.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14.1%) 등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5.2	3.9	-9.8	-9.6	-3.4	-11.2	-24.0	-17.2
		전자부품 외	9.0	-3.9	-2.5	-2.0	1.8	-11.3	-13.5	-14.3	57.5	-26.3
		식료품	-2.3	4.5	1.3	4.9	5.2	17.8	27.7	16.4	42.7	8.2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19.1	50.3	16.8	15.0	13.3	24.3	28.3	-23.
		전자부품 외	5.4	14.5	19.6	13.8	10.8	20.1	11.0	20.9	9.1	-1.8
		의약품 외	26.2	14.9	15.7	24.0	-2.6	-14.6	-10.1	-21.3	-18.6	-10.4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26.8	2.6	-19.8	-37.8	-47.4	-31.7	-27.2	-19.8
		기계 및 장비	14.2	3.7	-4.8	10.0	13.7	-12.5	6.4	-14.2	-11.9	-15.1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0.4	-4.1	-6.2	-9.7	-5.2	-6.1	-13.6	-14.1
고 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7 (0.0)	7 (133.3)	6 (50.0)	5 (25.0)	5 (25.0)	5 (25.0)	5 (-28.6)	5 (-28.6)
		제조업	442 (-1.1)	450 (1.8)	449 (2.3)	457 (4.3)	440 (-0.5)	454 (0.0)	457 (1.6)	456 (-0.2)	452 (-1.1)	473 (6.5)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78 (0.9)	4,670 (0.7)	4,681 (0.5)	4,637 (0.7)	4,627 (0.1)	4,683 (1.4)	4,690 (0.8)	4,742 (1.0)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83.3)	2 (-81.8)	2 (-50.0)	2 (100.0)	2 (100.0)	2 (100.0)	3 (50.0)	3 (0.0)
		제조업	312 (-3.7)	322 (3.2)	323 (6.6)	322 (2.5)	321 (0.3)	308 (-4.9)	305 (-6.7)	311 (-4.3)	308 (-6.1)	318 (-1.9)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288 (2.2)	1,314 (5.2)	1,318 (5.8)	1,302 (5.4)	1,312 (5.2)	1,309 (4.4)	1,336 (6.1)	1,348 (4.3)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46 (19.7)	162 (30.6)	127 (11.4)	92 (4.5)	73 (-8.8)	132 (30.7)	160 (29.0)	173 (12.3)
		제조업	1,344 (4.8)	1,468 (9.2)	1,477 (9.0)	1,489 (13.2)	1,483 (10.5)	1,445 (1.5)	1,442 (2.1)	1,455 (0.0)	1,424 (-3.6)	1,431 (-3.2)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6,075 (7.0)	6,043 (3.9)	5,995 (1.9)	5,939 (1.0)	5,940 (0.4)	5,983 (0.9)	6,026 (0.5)	6,147 (0.7)
수 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17,734 (0.5)	16,437 (-3.3)	15,370 (-12.9)	16,203 (-6.7)	5,513 (1.9)	6,016 (-1.0)	5,539 (-3.8)	5,833 (-4.6)
	인천		47,395 (25.7)	54,309 (14.6)	13,049 (21.7)	14,726 (23.4)	13,327 (-9.3)	12,454 (-5.4)	3,884 (-1.8)	4,598 (-6.6)	4,239 (4.2)	4,725 (11.3)
	경기		137,832 (19.7)	137,460 (-0.3)	36,256 (6.0)	34,593 (-2.0)	31,111 (-16.4)	29,062 (-18.0)	9,552 (-12.4)	10,903 (-17.4)	9,366 (-20.5)	10,289 (-16.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12.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2%)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72.4%)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8.9%), 반도체제조용 장비(-24.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2) 충청권

□ 대전

- 생산 감소(-6.4%), 고용 증가(1.0%), 수출 감소(-33.2%)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6.8%), 기타 기계 및 장비(5.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6%)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3.8%)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5.2%), 우주선 및 부품(-59.2%)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세종

- 생산 소폭 감소(-0.9%), 고용 증가(5.5%), 수출 감소(-33.3%)
 -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6.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소폭 감소
 - 제조업(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4%)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51.4%)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45.7%), 기구 부품(-47.4%)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8.6	11.4	2.1	18.8	28.3	21.6	13.7	6.8
		화학제품 외	-10.0	-21.2	-24.0	-39.6	-27.7	-42.1	-34.7	-41.6	-10.4	-6.6
		기계 및 장비	1.2	8.1	-9.9	21.2	12.6	0.1	15.7	-16.6	8.1	5.1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17.7	9.0	-20.4	-47.3	-53.3	-46.3	-42.7	-41.3
		화학제품 외	3.8	3.4	0.4	-18.1	24.1	-16.8	-12.1	-12.2	-4.4	-8.2
		식료품	2.5	-1.5	-7.7	11.7	6.2	9.3	15.2	10.8	7.9	16.0
	충북	전자부품 외	32.4	-5.1	30.8	-14.5	-44.5	-35.2	-24.2	-38.8	-17.7	-16.7
		화학제품 외	19.3	-38.1	-20.3	-52.3	-29.3	-31.4	-16.6	-42.4	-20.3	-18.8
		식료품	4.5	2.7	6.5	4.1	-4.5	-9.1	-1.7	-11.6	-10.9	-2.0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4.4	-18.0	-12.6	-25.5	-25.2	-24.3	-21.7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3.6	26.2	13.6	28.3	25.7	20.7	15.3	15.6	
화학제품 외		9.3	-4.0	1.9	-9.5	-11.1	-10.4	-8.9	-9.5	-6.6	-26.9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9 (12.5)	9 (12.5)	8 (-20.0)	7 (-22.2)	7 (-22.2)	8 (-11.1)	7 (-12.5)	8 (-20.0)
		제조업	91 (-13.3)	78 (-14.3)	78 (-16.1)	76 (-16.5)	78 (-9.3)	77 (-3.8)	77 (-2.5)	79 (0.0)	80 (5.3)	77 (-3.8)
		SOC·서비스	684 (2.5)	707 (3.4)	702 (2.5)	712 (2.2)	720 (3.0)	711 (2.4)	715 (2.6)	708 (1.6)	707 (0.9)	715 (1.7)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10 (-9.1)	8 (-27.3)	7 (-12.5)	6 (0.0)	5 (0.0)	8 (14.3)	9 (0.0)	8 (-20.0)
		제조업	24 (0.0)	28 (16.7)	28 (21.7)	29 (20.8)	30 (20.0)	29 (11.5)	29 (11.5)	28 (3.7)	30 (11.1)	30 (3.4)
		SOC·서비스	153 (3.4)	161 (5.2)	162 (4.5)	164 (6.5)	164 (7.9)	169 (9.0)	167 (7.7)	172 (8.2)	172 (8.2)	174 (7.4)
	충북	농림·어업	96 (3.2)	101 (5.2)	106 (5.0)	109 (4.8)	97 (-4.0)	89 (-4.3)	87 (-5.4)	104 (8.3)	109 (6.9)	117 (6.4)
		제조업	212 (5.5)	198 (-6.6)	198 (-7.0)	194 (-6.3)	189 (-10.4)	189 (-10.4)	186 (-11.0)	193 (-8.5)	197 (-0.5)	202 (2.5)
		SOC·서비스	588 (-1.3)	626 (6.5)	634 (7.1)	635 (6.0)	644 (7.2)	629 (6.6)	632 (7.3)	647 (6.1)	643 (2.6)	635 (0.2)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211 (7.1)	205 (-0.5)	161 (-9.6)	118 (-15.1)	105 (-18.6)	148 (-12.9)	174 (-11.7)	195 (-11.0)
		제조업	257 (2.8)	252 (-1.9)	242 (-6.6)	254 (1.6)	258 (-1.5)	266 (5.6)	264 (7.3)	270 (8.4)	271 (13.4)	283 (18.4)
		SOC·서비스	760 (-0.5)	795 (4.6)	788 (3.7)	808 (4.3)	825 (7.3)	795 (4.6)	793 (5.0)	804 (3.5)	809 (3.1)	803 (1.4)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1,295 (10.2)	1,131 (-8.9)	1,028 (-18.3)	1,069 (-13.2)	383 (3.0)	372 (-15.5)	364 (-9.9)	339 (-32.2)	
	세종	1,532 (17.8)	1,621 (5.8)	438 (21.3)	410 (5.7)	356 (-15.4)	273 (-34.5)	78 (-39.5)	97 (-36.2)	96 (-30.9)	100 (-33.3)	
	충북	28,766 (15.7)	32,428 (12.7)	8,402 (25.1)	8,731 (15.2)	7,177 (-1.0)	7,456 (-8.0)	2,377 (-4.9)	2,683 (-12.8)	2,291 (-13.7)	2,341 (-18.9)	
	충남	104,122 (30.9)	107,489 (3.2)	28,333 (14.4)	27,118 (-3.8)	23,107 (-20.6)	18,701 (-35.4)	5,742 (-35.4)	7,405 (-31.9)	5,758 (-39.2)	6,217 (-35.1)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충북

- 생산 감소(-10.0%), 고용 증가(1.4%), 수출 감소(-18.9%)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6.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8.8%), 식료품 제조업(-2.0%)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2%)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건전지 및 축전지(46.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2.9%), 정밀화학원료(-5.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감소(-3.1%), 고용 증가(2.6%), 수출 감소(-35.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5.6%)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0%)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1.0%)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8.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48.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5.8%), 석유제품(-3.9%) 모두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감소(-6.0%), 고용 증가(1.9%), 수출 감소(-3.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3%)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장비(-30.1%), 기타 기계 및 장비(-10.6%)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1.9%)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31.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5.5	21.7	11.8	23.9	42.7	42.4	27.4	16.3
		전기장비	15.7	-7.6	-0.2	-23.0	-22.2	-23.5	-20.5	-18.7	-26.0	-30.1
		기계 및 장비	10.6	1.0	-3.2	12.1	-5.4	3.7	17.7	-4.9	-1.3	-10.6
	전 북	식료품	-1.2	2.9	4.8	6.2	-3.0	-6.5	-3.3	-6.7	-6.2	-12.2
		화학제품 외	-1.5	-4.3	-6.8	-1.7	-4.5	-3.7	1.0	-7.3	-5.4	-1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8.8	27.6	16.1	2.9	1.9	20.8	34.9	4.4
	전 남	화학제품 외	11.5	-6.5	-1.6	-8.9	-21.5	-8.6	-5.3	-5.4	-13.1	-5.0
		1차 금속 제조업	7.6	-2.9	-5.2	-1.9	-2.2	-0.4	0.5	6.8	1.9	-2.4
		석유정제품	11.1	3.8	1.8	2.5	3.3	1.8	0.6	-0.9	-10.8	2.5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16 (23.1)	16 (33.3)	15 (15.4)	18 (38.5)	18 (38.5)	18 (38.5)	19 (35.7)	21 (31.3)
		제조업	100 (-6.5)	104 (4.0)	107 (7.0)	105 (9.4)	102 (1.0)	100 (-2.9)	99 (-2.0)	102 (-2.9)	104 (-3.7)	105 (-1.9)
		SOC·서비스	632 (1.1)	631 (-0.2)	626 (-2.0)	634 (-1.6)	639 (1.9)	641 (2.7)	642 (2.6)	645 (2.1)	646 (3.7)	640 (1.7)
	전 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79 (0.0)	186 (8.1)	170 (3.7)	151 (0.0)	150 (0.7)	157 (1.3)	168 (-3.4)	179 (-0.6)
		제조업	120 (-2.4)	119 (-0.8)	113 (-4.2)	117 (0.9)	124 (0.8)	123 (1.7)	124 (3.3)	122 (2.5)	126 (14.5)	128 (13.3)
		SOC·서비스	663 (5.2)	677 (2.1)	693 (4.4)	688 (1.0)	667 (-0.1)	679 (2.6)	688 (3.6)	689 (2.5)	686 (-0.6)	689 (-1.1)
	전 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35 (6.3)	241 (5.2)	238 (3.5)	218 (-1.8)	212 (-3.6)	219 (-4.4)	223 (-4.3)	233 (-1.7)
		제조업	97 (-8.5)	99 (2.1)	100 (3.1)	99 (1.0)	95 (-3.1)	102 (2.0)	105 (7.1)	100 (0.0)	94 (-6.0)	99 (-1.0)
		SOC·서비스	667 (0.8)	678 (1.6)	688 (1.6)	680 (0.9)	683 (2.2)	684 (3.8)	686 (2.8)	709 (6.5)	718 (5.4)	714 (2.1)
수 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4,700 (12.1)	4,703 (19.0)	4,359 (-1.6)	4,426 (5.8)	1,372 (11.0)	1,624 (5.2)	1,429 (-9.7)	1,554 (-3.9)	
	전북	7,820 (33.9)	8,223 (5.2)	2,145 (7.2)	2,013 (2.4)	1,862 (-11.2)	1,884 (-14.3)	642 (-5.6)	673 (-12.8)	711 (-1.8)	653 (-12.0)	
	전남	43,294 (59.8)	49,438 (14.2)	13,386 (31.5)	13,161 (13.6)	10,879 (-13.3)	9,954 (-17.1)	3,354 (-20.2)	3,404 (-18.3)	2,603 (-19.3)	3,096 (-4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20.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냉장고(-19.8%), 반도체(-14.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전북

- 생산 감소(-5.8%),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감소(-12.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4.4%)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9%), 식품품 제조업(-12.2%)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3.3%)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1%)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8.5%), 건설광산기계(8.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제품(-10.4%), 농기계(-23.2%)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감소(-4.4%), 고용 소폭 증가(0.9%), 수출 감소(-44.3%)
 - 주요 업종인 석유정제품(2.5%)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0%), 1차 금속 제조업(-2.4%)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7%), 제조업(-1.0%)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63.4%), 석유제품(-46.3%), 합성수지(-18.9%)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4) 대경권

□ 대구

- 생산 감소(-3.4%), 고용 증가(3.5%), 수출 증가(16.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2%), 금속가공제품(10.6%)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16.4%)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 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7.2	-3.2	-4.3	-3.8	0.1	2.7	2.3	1.8	9.4	10.6
		기계 및 장비	31.1	11.0	9.6	9.8	14.7	14.0	20.5	11.1	-2.1	-1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7.0	15.0	15.3	11.2	22.5	10.9	11.0	13.2
	경북	전자부품 외	7.3	-7.4	-9.0	-2.5	-9.1	-0.9	14.4	-21.4	-6.9	-26.5
		1차 금속	1.8	-16.7	-4.4	-21.0	-39.1	-13.2	-10.3	-7.6	0.1	-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14.3	22.4	27.4	23.3	28.1	30.7	14.3	18.3
고 용	대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2 (-25.0)	11 (0.0)	10 (-9.1)	8 (0.0)	7 (0.0)	11 (22.2)	9 (-18.2)	14 (0.0)
		제조업	239 (3.5)	240 (0.4)	239 (-2.8)	244 (1.2)	240 (2.6)	240 (1.3)	242 (1.7)	239 (1.3)	241 (1.3)	243 (1.7)
		SOC·서비스	963 (4.3)	978 (1.6)	982 (1.6)	984 (0.5)	976 (-0.4)	972 (0.2)	973 (0.4)	991 (0.9)	987 (1.1)	1,028 (4.0)
	경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86 (0.4)	292 (-0.3)	293 (8.1)	261 (4.8)	259 (5.3)	279 (6.5)	295 (8.9)	309 (6.6)
		제조업	283 (-3.1)	293 (3.5)	298 (7.6)	296 (5.3)	280 (-5.1)	268 (-10.4)	267 (-11.3)	268 (-10.4)	263 (-12.0)	253 (-14.8)
		SOC·서비스	853 (-1.2)	888 (4.1)	908 (6.3)	897 (3.8)	891 (3.4)	897 (4.8)	903 (6.1)	917 (3.6)	935 (3.8)	942 (2.7)
수 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2,653 (36.1)	2,799 (46.5)	2,840 (28.1)	2,997 (27.6)	1,008 (48.5)	1,149 (31.8)	1,007 (17.1)	1,045 (16.8)	
	경북	44,314 (19.5)	46,888 (5.8)	11,743 (13.9)	10,985 (-1.1)	11,497 (-8.7)	12,001 (-5.2)	3,952 (8.2)	4,003 (-19.9)	3,794 (-12.8)	4,044 (2.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제조업(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0%)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기계(68.9%), 정밀화학원료(42.0%), 자동차부품(6.0%) 모두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북

- 생산 감소(-7.1%),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증가(2.6%)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8.3%)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5%), 1차 금속 제조업(-8.0%)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4.8%)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22.9%) 등의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53.5%), 철강판(48.8%)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 생산 감소(-9.5%), 고용 소폭 증가(0.5%), 수출 감소(-1.9%)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제조업(-11.2%), 기타 기계 및 장비(-6.9%)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9.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6.5%)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151.2%), 원동기 및 펌프(21.3%)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판(-25.0%)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울산

- 생산 감소(-3.0%),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감소(-14.7%)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1.8%)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1%), 석유정제품(-1.4%)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9.1%)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5%)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2.5	4.5	7.0	4.8	3.3	10.4	19.9	16.0	1.0	-6.9
		금속 가공제품	-11.5	2.0	-1.5	8.6	12.5	15.7	27.4	17.5	6.0	1.2
		식료품	3.6	-0.8	0.5	-3.1	-8.2	-11.4	-5.6	-12.5	-19.3	-11.2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2.2	6.5	10.1	18.4	26.1	30.4	4.8	11.8
		화학제품 외	6.9	-10.5	-6.7	-17.4	-16.2	-13.3	-11.5	-12.4	-9.8	-10.1
		석유정제품	-1.5	9.4	8.7	12.3	0.2	-5.5	-4.7	-4.2	-3.7	-1.4
	경 남	기계 및 장비	9.9	4.1	-1.6	5.1	8.4	0.5	8.6	2.5	-7.7	-3.9
		기타 운송장비	-12.7	18.6	21.0	19.3	13.3	8.3	15.6	7.2	0.2	10.2
		금속가공제품	-5.7	8.7	5.0	15.8	18.6	19.1	23.0	25.3	-7.2	0.4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20 (100.0)	18 (50.0)	19 (35.7)	21 (16.7)	20 (11.1)	22 (15.8)	22 (4.8)	23 (9.5)
		제조업	240 (-5.9)	225 (-6.3)	229 (-6.1)	222 (-6.3)	222 (-1.8)	221 (-2.2)	219 (-4.8)	219 (-3.5)	219 (-3.9)	217 (-6.5)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32 (1.1)	1,456 (1.6)	1,451 (2.2)	1,437 (2.5)	1,424 (0.9)	1,457 (3.4)	1,454 (2.8)	1,459 (1.5)
	울 산	농림·어업	6 (-14.3)	6 (0.0)	6 (0.0)	7 (0.0)	7 (40.0)	6 (20.0)	5 (0.0)	7 (75.0)	8 (60.0)	7 (16.7)
		제조업	163 (0.6)	168 (3.1)	163 (0.6)	172 (5.5)	181 (11.7)	178 (13.4)	178 (13.4)	177 (14.2)	176 (12.8)	179 (9.1)
		SOC·서비스	385 (-1.8)	392 (1.8)	401 (4.4)	394 (1.3)	384 (-2.0)	381 (-2.3)	380 (-1.6)	387 (-3.0)	388 (-3.2)	389 (-3.5)
	경 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34 (13.0)	238 (5.8)	214 (2.4)	195 (-0.5)	194 (-0.5)	207 (0.0)	214 (-3.6)	221 (-6.8)
		제조업	377 (-5.5)	390 (3.4)	394 (3.7)	381 (3.0)	395 (4.8)	375 (-4.1)	366 (-4.2)	378 (-5.3)	369 (-9.3)	356 (-9.2)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38 (-3.1)	1,126 (-3.3)	1,131 (-0.6)	1,144 (1.7)	1,147 (1.4)	1,171 (2.4)	1,197 (5.6)	1,217 (6.8)
수 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4,215 (12.1)	4,117 (7.8)	3,858 (-6.9)	3,734 (-6.7)	1,171 (-10.5)	1,409 (0.8)	1,304 (-16.5)	1,394 (-1.9)	
	울산	74,268 (32.4)	90,154 (21.4)	23,353 (24.2)	23,194 (25.8)	22,258 (8.9)	21,384 (0.5)	7,705 (11.1)	7,235 (-5.1)	7,359 (-11.6)	6,958 (-14.7)	
	경남	39,262 (9.4)	36,429 (-7.2)	8,623 (-6.7)	9,233 (-1.4)	9,336 (-5.6)	9,070 (-1.8)	3,038 (-0.4)	3,153 (-7.2)	3,414 (28.8)	3,381 (4.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24.2%)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34.7%), 석유제품(-33.3%)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경남

- 생산 감소(-2.5%),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4.3%)
 - 주요 업종인 금속가공제품(0.4%), 기타 운송장비(10.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3.9%)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9.2%)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8%)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5.4%)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19.9%), 레일 및 철구조물(298.9%)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소폭 증가(0.6%), 고용 증가(4.2%), 수출 증가(4.4%)
 - 대표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9.0%), 비금속 광물제품(-7.8%), 음료 제조업(-4.9%)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소폭에 그침.
 - 농림·어업(-3.3%)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5%), 제조업(3.7%)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산가공품(-21.2%)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293.7%), 전자응용기기(14.4%) 등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제주

- 생산 증가(1.9%),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23.5%)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4.9%), 식료품 제조업(-1.9%)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2.6	-1.9	-3.1	-5.4	-2.4	1.6	-3.9	-7.8
		식료품	1.2	0.8	8.7	-1.6	-7.7	-8.3	-3.3	-4.5	-8.5	-9.0
		음료	5.0	29.6	33.8	34.3	17.2	11.2	17.3	2.4	-4.2	-4.9
	제 주	음료	4.4	0.8	0.4	-5.6	1.0	6.3	49.8	8.9	-6.2	-4.9
		식료품	2.4	8.1	8.7	8.1	2.0	-4.0	3.2	-12.7	-11.3	-1.9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8.4	12.2	-8.6	3.8	7.0	6.9	18.9	22.5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88 (17.3)	88 (7.3)	64 (-11.1)	42 (-12.5)	33 (-23.3)	61 (1.7)	82 (1.2)	89 (-3.3)
		제조업	55 (-3.5)	54 (-1.8)	54 (0.0)	52 (-5.5)	53 (-5.4)	49 (-10.9)	48 (-14.3)	49 (-9.3)	52 (-1.9)	56 (3.7)
		SOC·서비스	678 (4.5)	686 (1.2)	689 (-1.1)	703 (0.9)	699 (2.0)	692 (6.0)	701 (5.3)	718 (6.5)	724 (5.8)	728 (5.5)
	제 주	농림·어업	67 (-9.5)	63 (-6.0)	64 (-5.9)	62 (0.0)	65 (-1.5)	54 (-12.9)	53 (-11.7)	52 (-17.5)	54 (-15.6)	50 (-23.1)
		제조업	14 (16.7)	16 (14.3)	16 (14.3)	16 (6.7)	16 (-5.9)	16 (0.0)	15 (-11.8)	15 (-11.8)	15 (0.0)	16 (6.7)
		SOC·서비스	302 (3.4)	323 (7.0)	317 (3.6)	326 (7.9)	333 (8.8)	322 (2.5)	323 (2.5)	326 (2.5)	329 (5.1)	336 (6.3)
수 출	강원		2,729 (34.9)	2,750 (0.8)	743 (12.7)	634 (-11.7)	630 (-12.4)	625 (-15.9)	225 (-7.8)	214 (-18.6)	217 (-22.5)	239 (4.4)
	제주		228 (47.1)	197 (-13.6)	50 (-16.7)	40 (-31.0)	53 (-18.5)	41 (-24.1)	12 (-25.0)	16 (-27.3)	12 (-25.0)	13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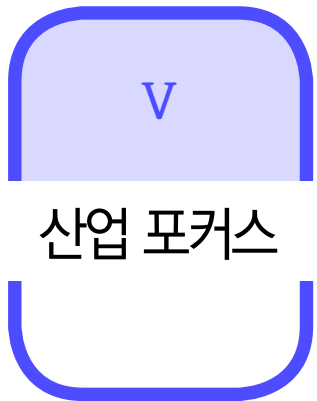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광물제품(22.5%)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23.1%)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6.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3%)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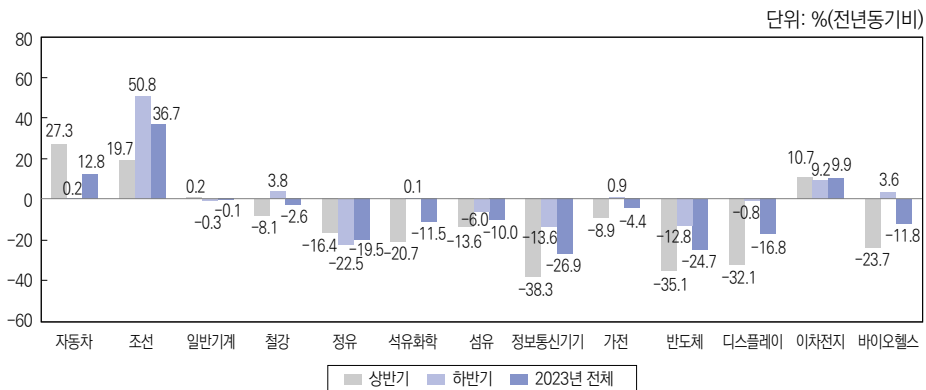
- 지역 수출품 중 기호식품(53.5%)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7.8%), 어류(-7.3%)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0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²⁾

- 수출은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4.3% 감소 전망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지(9.2%), 바이오헬스(3.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3.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3%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2023),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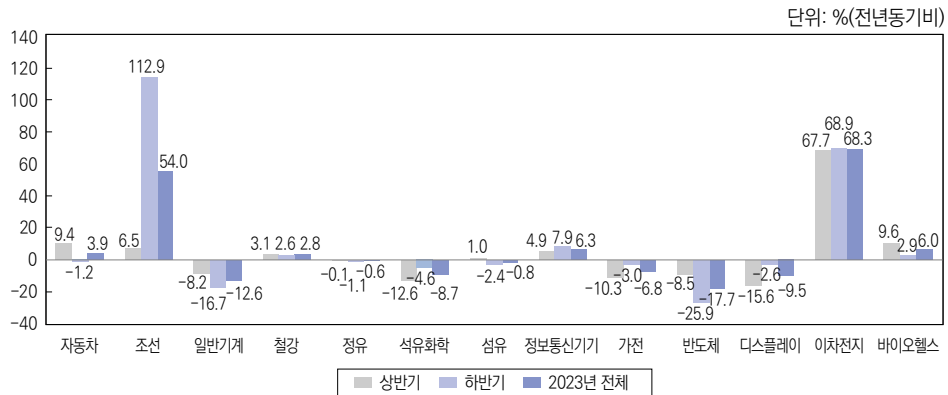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 자동차(0.2%)와 일반기계(-0.3%)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조선(50.8%)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6.6%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누적된 이연수요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고 고금리, 경기불안 요인으로 신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비 0.2% 증가한 413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 예상
 - 조선 수출은 상반기(19.7%)에는 생산 지연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하반기에는 인력 충원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비 50.8% 증가 예상
 - 일반기계는 대미, 대유럽 수출은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0.3% 소폭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단가 하락 및 수입수요 둔화로 전년동기(2.4%) 증가에서 올해 하반기(-8.6%)에는 감소 전환 전망
 - 철강은 중국의 감산에 따른 반사이익, EU 제조업 생산 회복세로 수출물량(3.4%)과 수출액(3.8%) 모두 증가 전망
 - 정유는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및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전년동기 수출물량(9.6%) 확대의 기저효과와 수출단가 및 정제마진의 동반 하락으로 수출물량(-1.0%)과 수출액(-22.5%) 모두 감소 전망
 - 석유화학 수출량은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증가와 중국향 수출 회복으로 1.9%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0.1% 증가에 그칠 전망
 - 섬유는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악재로 전년동기(-12.7%)에 이어 수출 감소세(-6.0%) 지속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13.6%)와 반도체(-12.8%) 부진으로 감소(-8.9%) 지속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다소 약화되면서 수요가 개선되고 누적된 재고 해소, 신제품 출시 및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13.6%를 기록하며 상반기(-38.3%) 대비 감소세 완화 전망
 - 가전은 세계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19.6%)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9%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 둔화 지속으로 회복세 지연

-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12.8%)에도 부진이 예상되지만, 최근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설비 교체 및 신규 수요 확대로 상반기(-35.1%) 대비 호전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연으로 전년동기비 0.8% 감소 전망
- 이차전지는 대미 수출 확대로 증가세는 지속되나 상반기(10.7%)보다 소폭 축소된 9.2%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위탁생산(CMO)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 해외 영업망과 네트워크 확보로 전년동기비 3.6% 증가 전망

□ 내수는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 지연

- 조선(112.9%), 정보통신기기(7.9%), 이차전지(6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지속하거나 성장세 둔화(철강, 바이오헬스)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는 내수 감소세 지속 전망
 - 자동차 내수는 하반기 누적된 이연수요 실현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면서 전년동기(7.8%)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비 1.2% 감소한 86만 8,000대 전망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LNG운반선 8척과 중국으로부터 벌크선과 페리선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전년동기비 112.9% 큰 폭 증가 전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우려와 함께 전년동기(5.2%) 내수 확대의 기저효과로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비 16.7%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경기 위축 지속 전망
 - 철강 내수는 조선업을 제외한 대다수 수요산업의 부진 또는 정체가 예상되며, 건설 및 설비투자 역시 하반기에 감소할 전망이나, 전년동기(-16.9%) 내수 급감의 기저효과로 전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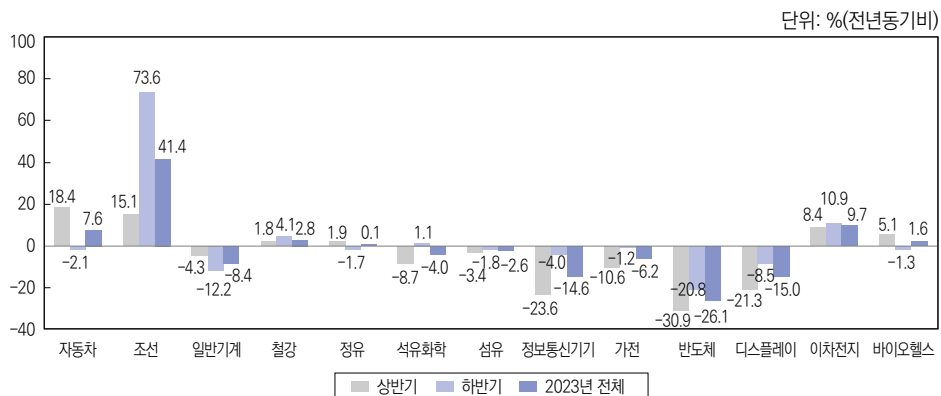
년동기비 2.6% 증가한 2,403만 5,000톤 규모 예상

- 정유 내수는 여행 수요 확대에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의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증가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비 1.1% 감소 전망
-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출 부진과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6%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가 IT신산업군 내수 성장을 주도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의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7.9%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및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3.0% 감소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수요 비중이 높은 PC를 비롯하여 SSD 등 반도체 가공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한 -25.9% 증가율 기록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친환경차 세제지원 연장 조치에 따른 생산·판매 확대에 전년동기비 68.9%의 높은 증가율 유지 전망

□ 생산은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 지속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2.1%)와 일반기계(-12.2%)는 내수 경기 둔화로 감소하나, 조선(73.6%)은 수주물량 본격 생산으로 큰 폭의 증가 전망
 -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망 안정과 외자계 업체들의 생산모델 투입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정체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193만 대 기록 전망
 - 조선은 선가가 높지 않았던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초에 대량으로 수주한 선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전년동기비 73.6% 큰 폭의 증가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주요 수출 대상국 건설·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입수요는 증가하나, 내수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기계류 재고를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12.2%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4.1%), 석유화학(1.1%)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유(-1.7%), 섬유(-1.8%)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전망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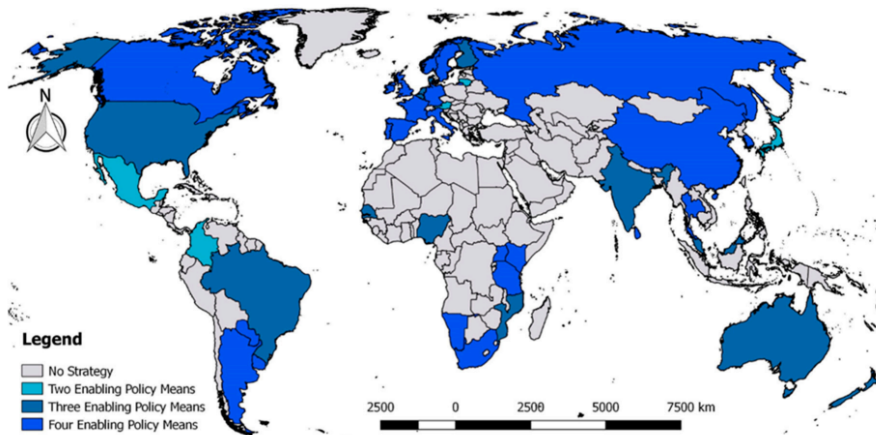
- 철강재 생산은 태풍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생산, 수출, 내수 모두 크게 부진했던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며 전년동기비 4.1%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수출량(1.9%)도 증가하나,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칠 전망
- (IT·신산업군)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부진, 해외 생산 확대 감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하반기에 수출이 회복세로 진입하고 내수도 증가(7.9%)로 전환하여 전년동기(-16.1%) 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4.0% 증가율 전망
 - 가전 생산은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의 확대와 설비 효율화 향상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내수 감소와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1.2% 감소 전망
 - 반도체 생산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전년 동기비 20.8% 큰 폭의 감소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대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동기비 10.9%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 생산은 2022년 3분기 이후 수요가 감소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대신 독감 백신·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주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비 1.3% 소폭 감소 전망

박상수 |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1) 주요국은 글로벌 리더십 선점을 위해 ‘바이오경제3)로의 전환’ 경쟁

- 2000년대 초반부터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 선도국들은 식량안보, 천연자원 고갈, 환경오염, 지속가능성장 등 사회적 도전과제를 인지하고 향후 생산-소비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개발에 집중
 - 또한 전통적으로 의약산업에서 강점을 지닌 EU와 미국에 산업 인프라와 바이오 첨단기술, 전문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면서 바이오경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바이오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

바이오경제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활성화 정도 비교



자료: Dietz et al.(2018).

3) 바이오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 OECD(2009)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고 미국 국립과학원(2020)은 ‘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의 연구 및 혁신에 의해 추진되고 공학, 컴퓨팅, 정보과학의 기술적 진보로 가능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융합으로 인간을 비롯한 생물자원 유전자 정보의 해독·분석·편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바이오경제가 현실화
- 바이오경제의 부상은 미래산업 전환기에 글로벌 주도권 확보 기회로 작용하면서 일본,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

(2) 「바이오경제⁴⁾ 2.0 전략」은 바이오헬스 집중형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바이오 융복합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화한 확장형 정책 어젠다

- 「바이오경제 1.0」은 신약 개발 및 기술 수출, 바이오 분야 일자리 창출, R&D 활용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시장 점유율 5% 달성 목표를 설정
 - 2017년 10월 정부는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한 한국형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⁵⁾를 발표
 - 정책 추진을 위해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4대 세부 목표를 제시
 - 세부 목표
 - ①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100개 창출, 국산 블록버스터(1조 원대) 5개 창출
 - ② 글로벌 기술수출액: 2015년 5억 2,200만 달러 → 2025년 27억 3,200만 달러
 - ③ 바이오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2015년 2만 6,000명 → 2025년 14만 5,000명
 - ④ 사회문제 해결에 바이오R&D가 기여: 2015년 7,000건 → 2025년 1만 건
- 2023년 7월 정부는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⁶⁾,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
 - 최근 바이오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과 전문화·친환경·융복합 등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

4) 우리 정부는 바이오경제를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메커니즘’으로 정의.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참고.

6) 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7. 19).

여 바이오 의약품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16대 중점과제를 계획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분야 포함

-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분야 1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과 동 기간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 15% 달성, 바이오 나프타* 국내 생산 20만 톤으로 확대 등 세부 목표 발표

*바이오 나프타란 석유 대신 콩 등의 농작물을 이용해 만든 화학제품 원료를 의미

-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만 외에도 규제 해소, 전문인력 양성, 수출 활성화 등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계획을 포함하여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

‘바이오경제 2.0’ 실현을 위한 4+1 추진 방향과 중점과제

추진 방향	중점과제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	① 민간 15조 7,000억 원 투자 총력 지원
	②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 10%(2027), 15%(2030) 달성
	③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 지원
	④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① 규제, 인증 등을 통해 시장창출
	② 다양한 바이오 신소재 제품 개발
	③ 바이오 신소재 원료 기술 개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① 신규 바이오 연료 실증
	② 법령 정비 및 표준 개발 지원
	③ 안정적 원료확보 지원
디지털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① 바이오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② 디지털헬스 대규모 실증 추진
	③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① 바이오 킬러 규제 발굴 및 해소
	②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③ 바이오 수출 활성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7. 19)로 산업연구원 작성.

(3) 국내 바이오산업은 절름발이형 성장, 글로벌 기업들과의 혁신경쟁에서 우위 점하기엔 역부족

- 최근 5년(2016~2021)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7.8% 성장 기록⁷⁾
 - * 같은 기간 투자는 8.4% 증가, 수출은 20.7% 증가, 고용은 6.0% 증가
 - 바이오의약 등 8대 분야가 포함된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16년 9조 2,610억 원에서 2021년 20조 9,980억 원으로 연평균 17.8% 증가
 -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와 바이오 서비스 생산액이 각각 연평균 47.8%, 34.6% 증가
- 국내 바이오산업은 절름발이형 성장, 균형감 있는 제도·정책 마련 필요
 - 국내 바이오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선도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 온 바이오 헬스(의약, 의료기기)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CAGR (2016~2021)
전체	9,261	10,146	10,607	12,659	17,198	20,998	22.1	17.8
바이오 의약	3,358	3,504	3,510	4,225	4,917	5,839	18.7	11.7
바이오 의료기기	748	777	848	1,044	3,898	5,279	35.4	47.8
바이오 식품	2,919	3,124	3,102	3,990	4,093	4,194	2.5	7.5
바이오 환경	30	46	58	56	66	69	4.2	18.6
바이오 자원	169	171	179	126	121	92	-23.8	-11.4
바이오 화학·에너지	1,334	1,595	1,792	1,856	2,125	2,751	29.4	15.6
바이오 장비 및 기기	120	113	89	111	172	191	10.9	9.8
바이오 서비스	585	815	1,030	1,252	1,806	2,584	43.1	34.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22),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7) 국내 바이오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생명공학기술 관련 활동에 종사한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 발표되며 2021년도에는 1,055개 기업이 응답.

- 뒤이어 바이오 식품과 바이오 화학·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기존의 식품제조업이나 화학·에너지산업과 비교하면 산업생명주기상 태동기에 해당하여 상용화된 제품의 생산 규모가 미미한 수준
- 바이오 의약품 외에도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매스(원재료) 조달 지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의 제조·유통 관련 법안 마련 및 인허가 규제 보완,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화, 시장수요 진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필요
- 국내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R&D 투자와 전략적 합종연횡 추진 등을 통해 생산역량 강화가 필요
 - ‘2022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⁸⁾’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인 미국의 존슨앤드존슨(4,024억 유로), 우리나라 1위 셀트리온(301억 유로)으로 세계 1위 대비 13.3% 수준
 - *순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인 미국의 매케슨(2,331억 유로), 우리나라 1위 셀트리온(14억 유로)으로 세계 1위 대비 0.6% 수준
 - 특히, 바이오 분야는 우수 R&D 성과가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인데 국내 혁신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경쟁국 혁신기업의 투자 대비 1% 미만 수준
 - *R&D 투자액 기준, 세계 1위인 미국의 존슨앤드존슨(130억 유로), 우리나라 1위는 대웅제약(1억 2,450만 유로)으로 세계 1,200위 달성했으나 세계 1위 대비 0.95% 수준
 - 현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R&D 투자와 과감한 M&A,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 등 개방형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에 비해 역부족

8)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는 매년 유럽연합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전 세계에서 R&D 투자 규모가 큰 상위 2,500개 사의 국가, 산업, 고용, 매출, R&D, 투자 등 정보를 제공.

주요국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의 규모와 R&D 투자

단위: 십억 유로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순매출	매케슨 (233.1)	바이엘 (44.1)	CR PHARMA (29.7)	다케다제약 (27.6)	셀트리온 (1.4)
	존슨앤드존슨 (82.8)	사노피 (37.8)	푸싱인터내셔널 (26.8)	오츠카제약 (11.6)	녹십자홀딩스 (1.4)
시가총액	존슨앤드존슨 (402.4)	메드트로닉 (158.4)	우시바이오로직스 (57.8)	다케다제약 (45.0)	셀트리온 (30.1)
	화이자 (228.1)	노보노르딕스 (149.7)	우시애펙 (46.9)	다이하찌산쿄 (39.4)	유한양행 (3.3)
R&D 투자	존슨앤드존슨 (13.0)	사노피 (5.7)	푸싱인터내셔널 (1.2)	다케다제약 (4.1)	대웅제약 (0.1)
	화이자 (10.2)	바이엘 (5.5)	자이랩 (7.7)	다이하찌산쿄 (2.0)	녹십자홀딩스 (0.1)

자료: EU(2022), *The 2022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 국가별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와 건강관리 장비 및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 중 순매출액, 시가총액, R&D 투자액 기준 상위 1·2위 기업.

(4) 바이오경제 시대, 기업·시장·정부의 협력으로 산업구조 전환 대비

- 이번 정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 민간투자 증대와 첨단바이오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전인하는 마중물 기대
 - 바이오산업 내 투자·생산·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기업-시장의 참여 긴요, 바이오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시장수용성 제고
- 바이오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 정비 및 노동시장 탄력적 대응 필요
 -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확대로 산업구조 재편이 예상되는바 관련 법제에 대한 국내외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바이오경제 추진전략 고도화
 - 기존 제조업의 바이오화 또는 바이오사업 참여가 증가할 전망으로 국내 바이오경제 규모 측정, 산업·고용·기술경쟁력 실태조사도 선행할 필요

정지은 | 신산업실 부연구위원